



MAGAZINE Gunsan

People & Culture in Gunsan



9 772383 813003
ISSN 2383-8132



___ (주)유일방재산업 박희욱 대표이사 & 카페·레스토랑 'COFFEENIE' 엄기숙 대표
___ 우민회관 엄익두 대표 ___ 중식당 쿤밍 최영남·염미란 부부 ___ 로봇군산 김대현 감독
___ 나운상가변영회장 이상해 ___ 기업인 가수 김명환 ___ 아르떼뷰티샵 김현지 대표 ___ 한상희 작가
___ 군산시, 도전하는 도시로! 창업수도를 꿈꾼다 ___ 이번 달도 군산 덕 좀 보았지



상상을 향해!
그 이상을 향해!

SHIDAO International Ferry

P.S NEW SHIDAO PEARL / P.S GUNSAN PEARL
DAILY SERVICE



석도국제훼리(주) www.shidaoferry.com

군산 tel. 063-441-1200 fax. 063-441-1220
 석도 tel. +86-631-728-6666 fax. +86-631-728-9399
 서울 tel. 02-725-7811 fax. 02-725-1671
 하역/운송사(주)제범 tel. 063-461-1803 fax. 063-461-1836

시민과 함께
꿈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시민이 직접 만들고
모두가 행복한 이곳,
바로 **군산**입니다



KSNU

사람으로 세상을 잇다

우리가 꿈꾸는 대학은
순수와 열정으로 세상을 흔드는
학생이 중심인 따뜻한 대학

국립군산대학교

교육혁신의 선두!

-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선정
- 국립대학육성사업 선정
-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선정

산학협력의 강자!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 선정
-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4개 분야 최우수

글로벌 인재의 요람!

- 교육국제화역량인증대학 선정
-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선정
- 신재생에너지사업(대형해상풍력 터빈 해상실증 기술 개발) 선정

군산대학교 발전기금 기부계좌 안내

- 전북은행 558-23-0312120
- 신한은행 100-011-581350
- 국민은행 759301-01-595479

예금주_재) 군산대학교발전지원재단 (기타 문의_ 063-469-7321)



교육부 평가 최우수 대학
국립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www.kunsan.ac.kr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군산대학교 후원의 집

Kunsan National University
House of Patronage

군산효자요양병원

병원(요양원)
063-472-8300
군산시 청소년회관로 45

오오플라트 치과

병원(치과)
063-454-8255
군산시 대야면 동만자길 2층

아시아볼링센터

스포츠, 오락
063-465-7888
군산시 백토로 198,
롯데시네마 1층

웨딩아이 스튜디오

웨딩 사진
063-466-2015
군산시 대학로 388

군산한우촌

음식(고기)
063-465-6969
군산시 대학로 649

감도야

음식(고기)
063-471-9377
군산시 하나문안2길 14

고봉민김밥인 미용점

음식(분식)
063-471-6776
군산시 황룡안길 50

은파리울 레스토랑

음식(양식)
063-464-9393
군산시 은파순환길 174-4

파라디소 페르두또

음식(양식)
063-471-8525
군산시 한밭로 76-11

군산일식

음식(일식)
063-468-8100
군산시 부곡1길 7

다래회집

음식(일식)
063-464-7875
군산시 대학로 394

오죽

음식(일식)
063-464-5625
군산시 한밭로 17

해녀

음식(일식)
063-442-7800
군산시 한밭2길 25

해담

음식(일식)
063-465-8789
군산시 은파순환길 174-6

하이난 ISLAND

음식(중식)
063-452-0909
군산시 수송로 128

수송아구

음식(한식)
063-466-8666
군산시 부곡1길 75

오감

음식(한식)
063-464-0166
군산시 미제길 29

정식당

음식(한식)
063-732-1004
군산시 당북길 11

아이씨엠

디자인, 출판, 인쇄
063-445-1856
군산시 큰샘길1, 2층

커피니 군산대 원당점

카페
063-466-8599
군산시 원당길 73-5

하버브릿지

카페
063-463-7766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2

가람꽃농원

화원/꽃
063-471-9495
군산시 옥산면 당쌍로 199

후원꽃집

화원/꽃
063-466-3400
군산시 문화로 141



후원금_ 전북은행 558-23-0312120 재)군산대학교발전지원재단
기타문의_ 063-469-7321

죽도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검도는 단순히 때리기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검도의 최종 목적은 인격형성을 추구하는 무도이기 때문에 기능 향상만을 위해 수련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검선을 일치시킴으로써 자아를 발견하는,
무도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체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장_진인하 7단

주소_전북 군산시 미장안길 50-13 (미장동) 통근타운 4동 301호

전화_(063)466-7377 팩스_(063)466-7377 이메일_kumdojin77@naver.com

사진제공_박진영

이제는 아이젠카에서!



군산지사장 이복

010-5265-5061

아이젠카 견적 업체 이달의 **특가 상품 이벤트**입니다.

월렌트로 최저가 선언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별도 납부 없음.

특가 상품은?

이번달 한달동안 업체에서 제공할수있는
최저가 견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특가 상품은 제조사 및 캐피탈사의 사정으로 인해 조기 마감될수있습니다.

아이젠카만의 차별화

1. "책임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계약
관리 팀 별도 운영

- 계약이후 끝이 아닌 철저한 사후관리로 고객만족 실현
- 민원 관련 고객센터 운영으로 고객서비스 실현

2. 월 납부로 최저가로 견적을 제공할것입니다

- 한개업체 견적이 아닌 복수 견적중 최저가 업체 견적을 비교 해드리겠습니다.

3. 아이젠카만의 서비스

- 자동차 전문 상담인력 배치로 고객이 원하는 정확한 정보전달 제공
- 질문을 남기시거나 문자서비스, 이메일 답변등을 통해서 고객님의 궁금하신 사항을 빠르게 확인하실수있습니다

4. 국내 렌트사 및 캐피탈사 제휴를 통해 최저가 차량만을 제공하고있습니다.

- 10여개의 렌트사 및 20여개의 캐피탈을 통해 믿을수있는 다양한 차량들을 고객님께 맞춤 제공해 드리고있습니다

5. 차별화된 차량 비교검색



장미칼럼

차별

요즘 군산이 차별, 혹은 역차별 아니냐는 소리로 시끄럽다. 새만금 때문이다.

먹고사는 데 바쁜 소시민들에겐 생소하게 들릴 일이지만 이 말 들으면 열받을지도 모르겠다. 더구나 차별이라니.....

1987년 7월 정부가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된 새만금개발이 기어서 기어서 19년만에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었다. 그 즈음 '정치권은 새만금을 그만 우려먹어라'는 지역 여론이 비등했다.

2007년 12월 27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새만금 안에서의 모든 개발 행위에 있어서 상위법에 우선한다는 특별법이었다. 새만금을 기획의 땅이라고 믿어 온 군산시민들은 물론이고 전북도민들과 정치권은 두 손 들고 환영했다.

무늬만 국가기관이라느니 권한없는 기관이라느니 말도 많았던 2008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을 거쳤고 2012년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주관부서가 농림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바뀌었다.

새만금개발청이 이 때 세종시 정부청사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지난 2018년 12월 지금의 새만금산업단지 입구로 청사가 이전하였다. 30여년의 긴 기다림이 지나고 새만금 시대가 금방 오고가 싶었다.

2015년 6월 한중FTA산업단지로 새만금이 단독 선정되었으며, 이듬해 4월 한·중경협 물결을 타고 중국CNPV가 알토란같은 4만8천평의 땅에 10.87MW(3,700가구 사용량) 태양광발전시설을 했다. 발전시설에 이어 모듈 생산라인을 짓겠다고 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떡튀' 논란이 나왔다.

고용 인원 한명없이 알짜 단지를 수십년간 무상 사용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특혜라는 소리가 나왔으나 개발청에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지난 해 군산의 향토기업 '동우팜투테이블'이 1,200명 이상의 직원이 필요한 새만금 공장을 세

우려고 했으나 당시 개발청은 도계, 혹은 도축 과정이 전체공정의 7%정도인 이 기업에게 '일부라도 제한업종이 있는 경우'를 적용하여 입주 신청서 접수조차 거부했다.

당시 그들은 "청정복합산업단지과 배후 주거지 조성 목적과 광활한 입지 여건상 취수지가 없음으로 인하여 용수공급에 한계로 제한업종을 규제하고 있다."는 논리였다. 동우는 결국 울초 군산을 떠나 고창으로 발길을 돌렸다.

요즘 2호 방조제 코 앞에 만든다고 하는 스마트수변도시 사업으로 30년 넘게 기다려온 군산사람들이 애가 탄다. 군산시는 물론 반대이지만 개발청은 속된 표현으로 '내 갈 길 간다'고 한다.

특별법의 권한을 시원시원하게 사용하고는 있지만 자칫하면 권한남용이라는 굴레가 씌워질 가능성도 높다. 지난해부터 공청회를 열면서 주변 도시의 의견을 들었다고는 하지만 실제 의견 구하기가 아니었다는 것 짚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도대체 국가 기관이 존립하는 이유가 뭔가. 힘없는 기업에겐 '갑질'비슷하게 몽니를 부리더니 특정한 외국기업에게 뒤통수를 당하고 유아무야 넘어가면 되는 일인가.

환경적인 요인을 들이대 군산의 향토기업에겐 입주를 거부하더니 6급수 이하의 수질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수면을 매립하여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건가?

막강한 권한에는 그보다 더한 책임이 따른다. 이 제까지의 일이 정당한 행정 행위인지 아니면 특정한, 혹은 특정집단의 몽니부리기인지는 머지않아 드러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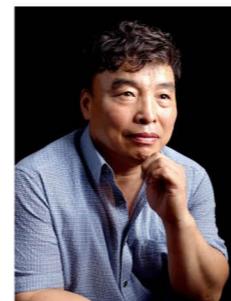
차별의 잣대를 들이대놓고 자기들이 계획한 일에는 문제없으니 내 갈 길 간다고? '무쓰의 뽕처럼 혼자서 간다'는 고상한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이중 잣대를 보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社告

본 지 회장 및 대기자 직에 이복 전 군산시의회 의원을 선임합니다.

이 회장은 군산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했으며, 지역에서 오랫동안 시민운동 활동과 지역 언론사의 편집국장을 맡아 우리 지역 언론문화 창달에 기여하기도 했으며, 제6, 7대 군산시의회 의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수시탐포럼 사무처장, 군경총 정무국장 등 각급 사회단체 실무 책임자를 맡아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장기렌트업인 '아이젠카' 군산지사장과 '해오름군산햇빛협동조합' 이사장 등 개인사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편집장_채명룡

구독문의

매거진군산은 월간지로서 자택에서 편하게 우편으로 받아보실 분께서는 **본 지 마지막페이지에 CMS 구독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063)445-185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입금처 신한은행 110-180-087549
예금주 이진우 (아이씨엠)

광고문의

매거진군산에 광고를 게재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광고 마케팅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광고마케팅 부서 (063)445-1856

기사제보

주변의 즐거운 이야기와 흥미로운 인물 등을 매거진군산에 제보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매거진군산과 편집의도와 방향이 어울린다면 누구나 자유기고가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글, 멋진 사진을 보내주세요.

282pyk@hanmail.net

매거진군산에 독자의견을 보내주세요.

매거진군산은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어떤의견이든 괜찮습니다. www.maggun.com의 독자의견에 올려주시거나 282pyk@hanmail.net에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맥군 후원 업체

- 오죽일식 식사권 / 063-464-5625
- 발렌타인피자 불고기피자 테이크아웃 / 063-442-4886
- 노가리&비어 (수송점) 세트안주 이용권 / 010-6542-5782
- 곰창이최고예요 (수송점) 곰창 1인분 이용권 / 050-7900-0803
- 도마 (수송점) 돼지한마리 세트 / 063-471-0023
- 바나나팩토리 커피 음료권 / 063-452-9479
- 8월의크리스마스 커피 음료권 / 010-8928-3481
- 소셜여행 커피샵 커피 음료권 / 063-446-9466
- 달 커피샵 커피 음료권 / 010-9548-3383
- 철길마을 우리문방구 사진매직거울 / 010-3556-2564

매거진군산에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협찬하시고 싶은 업체는 연락 바랍니다.

<맥군의 오타를 잡아라!>

맥군의 오타자를 찾아 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연락처와 주소를 기재하여 보내주십시오.

E-mail 282pyk@hanmail.net **Fax** 063) 446-1856



Vol.111 | 2020.06



회장대기자	이복	bok9353@hanmail.net
발행인	이진우	jay0810@hanmail.net
편집장	채명동	ml7614@naver.com
디자인	박유경	282pyk@hanmail.net
	이경호	kyungho159@naver.com
주간	오성렬	poi3275@naver.com
편집위원	김혜진	kimhyejin0324@hanmail.net
편집위원	박청숙	njpcslife@gmail.com
편집위원	이현웅	gunsanmusic@daum.net
편집위원	김정인	jbct20102@jbct.or.kr
컬럼니스트	남대진	bitsori454@daum.net
컬럼니스트	은승조	gsforum@hanmail.net

제작 ICM (063)445-1856
주소 전북 군산시 큰샘길 1
출판신고번호 467-2011-000002
인쇄 진영인쇄 (063)446-7801
온라인 웹닉스 (063)453-5430

매거진군산은 www.maggun.com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군산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거진군산은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타간행물사업 신고 번호 군산 라 00007 / 매거진군산은 군산사람들과 군산의 라이프스타일을 코디해주는 오직 군산사람들을 위한 잡지입니다.

아이와 어른을 위한
신재순 시인의 동시로 건네는 안부 16

년

에드윈마크햄

그는 원을 그려 나를 밖으로 밀어냈다.

나에게 온갖 비난을 퍼부으면서.

그러나 나에게는

사랑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

나는 더 큰 원을 그려 그를 안으로 초대했다.

- <시로 납치하다> 더숲. 2018.

동심을 노래한 시 중 어린이가 쓴 시를 어린이시라고 하고 어린이시와 구별지어 어른이 쓴 시는 동시라고 합니다. 여기 어른이 되고 싶은 아이와 아이가 되고 싶은 어른이 함께 읽으면 좋을 동시를 전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안부를 건넵니다. 편안하십니까. 그리고 부디 편안하시길요.

살다 보면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또는 상대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무리에서 밀려나기도 하고, 배척당하는 일이 있기도 하지요. 그럴 때 느끼는 배신감으로 잠 못 이루기도 하고, 어떻게든 갚아 주고 싶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요. 그러니 무리에서 밀려났다고 의기소침해 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시에서처럼 사랑과 지혜로 더 큰 원을 그려보면 어떨까요? 알고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고, 저마다 좋은 사람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내가 약자라는 생각보다 더 여유 있고 감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꾸 더 큰 원을 그려보는 연습, 감염병으로 힘든 나날을 이기는 또 다른 처방이 될 것입니다.

신재순
시인 / 한국동시문학회, 전북작가회의 회원



(주)유일방재산업
박희옥 대표이사

카페레스토랑
'COFFEENIE'
엄기숙 대표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군산대학교 뒤편 원당마을. 아담한 수련(水蓮)저수지를 입구에 두고 고즈넉이 자리한 이 마을에 멋진 경관의 카페가 들어서 시선을 끈다. 군산 사람들조차 이런 동네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흔치 않을 만큼 이곳은 조용한 은둔의 마을이라 할 만하는데 이 저수지변에 신축된 산뜻한 외관의 카페 '커피:니(COFFEENIE)'는 양식 레스토랑도 겸한 업소로 한가로운 창밖 풍경과 함께 멋진 야경이며 여유롭고 쾌적한 실내 분위기까지 군산의 새로운 명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프랜차이즈 커피:니가 군산대 원당점으로 개업한 것은 1년 전인 작년 7월. 스스로 활발한 성격이라 말하는 이곳의 엄기숙 대표는 대전에서 나고 자랐지만 군산 출신 남편인 박희옥 씨(유일방재산업 대표이사)따라 군산에 정착하게 된 것으로 사실 이전만 해도 군산은 전혀 생소한 곳으로서 남편의 사업체 주소를 대전에서 군산으로 이전하면서 아예 삶의 터전을 옮긴 것이다. 원당마을엔 시댁 소유 땅도 약간 있었기에 추가로 인근 토지를 매입, 카페를 신축 개업하게 된 것인데 지금은 찾아오는 고객들과 교류하면서 지역 실정에 대한 견문도 넓히는 가운데 여유로움과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남편인 (주)유일방재산업 박희옥 대표이사는 군산기계공고와 성균관대 화공과를 졸업한 엔지니어로서 젊어 한때 익산의 하림에서 직장생활을 한 적도 있으나 3년 만에 퇴사하고 평소의 관심분야였던 환경 쪽으로 방향전환을 했다. 일찍이 장치산업에 관심이 컸고 환경과 소방관련 자격증도 취득했던 터여서 처음엔 방재관련 도매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돈을 벌게 되자 그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자 방재산업회사를 설립, 창업에 뛰어든다.





박희욱 엄기숙 대표 부부

하지만 사업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그간 모았던 돈도 허망하게 다 날렸다. 실패를 겪은 후 무엇이 문제였는지 터득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그는 재기를 다짐하며 본점은 대전에 두고 김제 공장에서 화재수신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독점력이 컸던 만큼 기대 이상의 수익을 올리게 된다.

하지만 전혀 예기치 않은 문제가 돌발되고 있었다. 거래 은행에서의 과도한 꺾기 압박 등 은행과의 마찰이 그것인데 지점장은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대화로는 다툼이 해결되지 않자 박 대표는 오기가 발동했고 사업을 포기했다. 은행 측의 무리한 요구에 굴복하고 끌려 다닌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회사 자산은 은행에서의 경매로 모두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실패를 겪으며 그간의 경험에서 터득한 사업에 대한 자신감은 누구 못지않게 충만하고 있었다.



커피니 야경

그는 2011년도 들어 (주)유일방재산업을 설립, 대전을 거점으로 다시 한 번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주 생산품인 화재수신기는 신축, 재건축 등을 불문하고 법적으로 모든 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장치로서 불경기를 타지 않았다. 유일방재에서 생산된 제품은 중간 도매상을 거쳐 시공업자에 공급되는데 특히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서의 수요가 많은 편이고 지역적으로는 경상도 쪽의 주문량이 전체 70%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며 사업은 순조로웠다. 이로써 지난 10년간 열심히 노력하며 탄탄한 재력을 쌓았지만 최근 예기치 않은 코로나 여파는 방재산업 분야에도 불황을 가져오면서 현재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라 말하는 박 대표, 사업이 안정 궤도에 오르자 어느덧 이순(耳順)을 앞에 둔 그에게 어릴 적 뛰어 놀던 고향은 늘 그리움의 대상이었다. 그는 귀향을 결심하고 부인을 설득, 작년에 유일방재 법인 소재지를 군산으로 옮기고 지금의 위치에 카페건물을 신축, 정착하기에 이른다.

어려서의 추억이 깃든 부모님이 거주하시던 주택은 철거되고 지금 그 터엔 기념으로 심은 나무 한 그루만이 대신하고 있는데 박 대표는 인근 약 3,800여 평에 달하는 토지를 매입, 1,2층 건평만 해도 140여 평에 달하는 멋진 카페 건물을 건축함으로써 고향 마을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사실 원당은 시내권이면서도 지정학적으로 외지고 조용한 곳이다 보니 사람의 통행이나 교통량도 한산함을 면치 못하는 지역이어서 이런 곳에 카페를 개업한다는 것은 선뜻 결심이 쉽지 않았으리라는 생각도 드는데, 최근 고객의 발길이 잦아지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복잡한 도심에서 비켜선 그러한 쾌적함과 여유로움이 고객들에게 어필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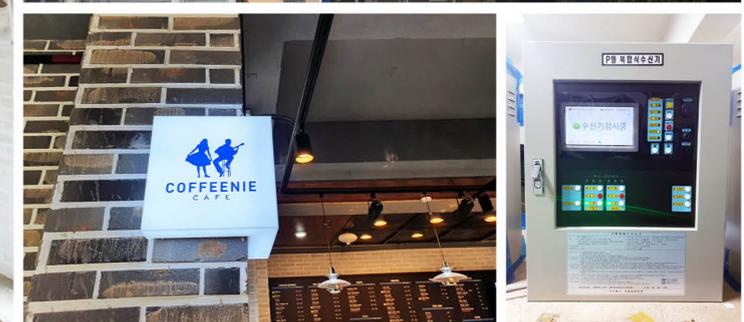
이들 부부는 카페 주변에 나무와 화초를 비롯하여 특히 뒷동산 일대에 아로니아를 많이 심었다. 향후 아로니아 정원에 멋진 조명을 갖춘 산책로를 조성하고 문화예술 공연 및 인문학 강의도 즐길 수 있는 별도 레스토랑과 부대 건물을 새롭게 지을 구상도 가다듬고 있는데 이에 따라 외국의 멋진 건축물 디자인을 참고하고자 틈틈이 SNS등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 영리를 추구할 생각은 없다고 말한다.



2층에서 밖으로 연결된 구름다리



유일방재산업 전경





따라서 카페 건물 옆 신축 창고 형 건물(60평)은 갤러리로 꾸며 미술작가들 누구나 전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현재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다. 박 대표에 따르면 작가들에 대한 대관료 부담 등은 일체 없으며 다만 이곳을 찾는 고객과 관광객들에게 자연 속에서의 편안한 휴식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쁨과 보람을 갖고 싶다고 부연한다.

사실 카페로부터 약50m 떨어진 카페 부지 안에는 별관 건물도 있어 이를 갤러리로 운영해도 좋을 정도로 외관이 수려한데 이것은 노인복지사업을 염두에 두고 신축한 것이지만 사정이 바뀌는 바람에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다. 따라서 향후 이 건물이 어떻게 활용될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박 대표는 엔지니어로서인지 부지 조성이나 건물 신축 시 모든 설계를 본인이 하고 있으며 주변 정리 작업도 자신이 직접 굴삭기(포크레인)로 처리할 정도로 다재다능한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커피니의 옥상에서는 주변의 숲과 저수지, 한가로운 마을 풍경과 함께 덤으로 밤하늘의 별을 보며 커피도 즐길 수 있거니와 또한 건물 밖에도 탁자를 비치하여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 원당의 새로운 랜드 마크로 자리매김할 커피니, 그러나 이곳에서 제공되는 모든 메뉴의 가격은 착한 편이다. 필자의 과문함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직접 시식해본 음식들은 가히 최상의 맛이라 할 만큼 가성비가 뛰어나며 샐러드돈가스 주문 시엔 아메리카노 또는 콜라 1잔이 무료 제공되기도 한다.



치즈빙수



스테이크 피자

커피니의 주 메뉴를 소개하면 각종 커피·음료의 경우 3,000~4,000원대를 비롯하여 스테이크 피자(비프스테이크, 큐브스테이크) 및 파스타, 훈제목심스테이크, 베스트 클래식피자(아이올리 포테이토, 이탈리아 콤보), 제스티핫치킨, 하와이안 딜라이트, 갈릭고르곤졸라 및 오븐스파게티(미트소스, 브로콜리 크림), 크로와상 와플, 치즈빙수에 이르기까지 7,000~14,000원대로 책정되어 있고, 이 밖에도 프라페, 셰이크, 스무디, 에이드, 과일주스, 프리미엄티 등은 4,000~6,000원대로 제공되고 있다.





이로써 커피:니는 어쩌면 2~3년 내 지금의 커피:니 건물 외에도 추가 건립 예정인 고급스런 레스토랑, 갤러리, 문화공연장, 뒷산에 조성된 아로니아 산책로와 수목들, 거기에 멋진 야경까지 더해져 품격 있는 먹거리와 문화가 접목된 군산의 새로운 레저 지대(Leisure Zone)로 시민의 사랑을 받을 듯하다. 박 대표 부부는 향후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와 마음껏 낭만을 누리고 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꿈꾸고 있다. 커피: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남달리 금슬 좋아 보이는 그들 부부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함도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커피:니 군산대원당점
 군산시 원당길 73-5
 T.063)466-8599



커피:니 전경



‘고기는 정성을 담아 준비해야 맛있습니다’

우민회관 엄익두 대표를 만나다

글 | 이진우(발행인)
jay0810@hanmail.net

군산에서 가장 맛있는 고깃집 중의 하나로 유명한 우민회관. 이곳이 고기 맛으로 유명해진 비결은 무엇일까? 2016년부터 우민회관을 운영해오고 있는 엄익두 대표를 만나 우민회관의 역사와 그의 사회활동에 대해 들었다.

- 우민회관은 언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왔는지 역사가 궁금하다. 원래 부친께서 오랫동안 운영하시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부친의 부재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처음 시작은 외할머니와 지금은 마트를 하고 계신 외삼촌이 1990년에 첫 문을 여셨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어서 하신 건 25년 정도 되셨습니다. 그러니 올해로 30년이 되었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계셨고 제가 2016년 6월부터 리모델링을 하여 들어와 부모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47년생이신 아버지는 주무시다가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너무도 갑작스러웠기 때문에 가족들과 지인들의 충격이 적지 않았죠.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도 크지만 그래도 언제나 함께 하고 있는 어머니와 주방을 20년 동안 책임져주시는 작은어머니가 계셔서 가게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게는 더욱 장사가 잘되었죠. 가족들은 아버지가 좋은 곳으로 가서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라고 믿고 빈자리를 생각할 겨를 없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민회관의 고기가 맛있다는 건 이제 군산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고기는 어떻게 공급 받는가?

오래전부터 거래해오던 회사에서 꾸준히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 업자께서 최상품고기를 소량 유통하시는 분이려 믿고 오랫동안 거래하고 있습니다.

- 고기를 대표가 직접 자른다고 하는데, 고기를 손질하는 방법에 따라 맛이 달라지지는가?

매일 직접손질하고 썰어서 손님들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기의 손질법은 아닙니다. 아버지 때부터 고집해오던 형태입니다. 요즘은 저희처럼 나오는 곳도 여럿 찾아볼 수 있죠. 따지고 보면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양을 직접 손질하려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 우민회관은 고기 외에도 청국장, 된장찌개의 맛도 유명하다. 특별한 조리법이 있는 것인가?

청국장 및 점심메뉴들은 점심시간에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기메뉴인 청국장은 김제에 있는 지인께서 수확한 신선한 콩을 구입하여 어머니께서 직접 삶고 띄우고 절구에 넣고 찧어서 청국장으로 만들어집니다. 처음엔 기계에 넣고 갈아보기도 하고 비닐을 씌워 푸대에 넣고 밟아보기도 했지만 콩이 골고루 부서지지 않아 힘들어도 절구에 넣고 직접 찧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녁시간까지 청국장이 제공되지 못하는 것이죠. 된장찌개는 어머니께서 간단하게 육수를 만들고 좋은 된장으로 끓이시는 건데 맛이 좋다고 해주시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 매장 앞의 충무공 그림이 그려지게 된 이유는?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이종배 작가가 올린 포스팅을 봤습니다. 그림을 그릴 큰 벽을 구한다고 하시길래 그림 저희가게에 해보시는 건 어떤지 댓글을 달았고 그날 저녁에 와서 보시고는 좋다고 하셔서 그리게 됐습니다. 작가님께서 “무엇을 그리고 싶냐?”라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이순신 장군님을 그리고 싶다고 했죠. 이순신장군님이 누구입니까? 수많은 일본인을 수장시키고 단 한 번도 일본수군에게 저분 적 없는 장수중에 장수 아니겠습니까? 당시 일본불매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을 물리치고 싶은 마음에 이순신장군님을 그리게 됐습니다. 다시한번 재능기부해주신 이종배 작가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청년관련 사회활동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어떤 활동인지 소개를 부탁한다.

2년 전에 우연히 지인을 통해 시청에서 '군산청년협의체' 청년위원을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었습니다. 운이 좋게 청년위원으로 위촉이 되었고 군산시 청년, 나아가 우리나라의 청년들에게 국가와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나 정책들을 홍보하고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부담되기도 하고 내가 청년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 게 있나? 되짚어 보기도 하고 나름 자료도 찾아보면서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는 청년위원들과 세계청년축제 홍보활동과 청년센터인 '청년뜰'에서 청년네트워크파티도 기획했습니다. 여러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과 청년이 우리사회의 주역이고 이 나이에 있는 당사자들은 올바른 목표와 사고방식, 직업관을 가지고 준비해 나간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묵묵히 청년들을 위해 애쓰시는 군산시청 일자리정책과 모든 공무원여러분들께 지면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우민회관의 목표는? 그리고 임대료 개인적 목표가 있다면?

우민회관은 군산에서 30년 동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어버이날에는 독거노인 및 어르신들에게 식사대접을 하고 있고 여러 지인들께서 십시일반 도움을 주셔서 작은 선물도 드릴수도 있었죠. 크리스마스에는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지역아동들에게 식사대접과 선물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행사에 항상 동참하여 멋진 공연을 해주시는 타악공화국 흥소리 대표 박문기 대표님과 김호주 단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민회관은 변함없는 마음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또한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지역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찾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민회관
전북 군산시 번영로 158-20
063-452-0427



최영남, 염미란 부부



‘쿤밍’ 최영남·염미란 부부

5월 초 수송동 매장에 정착
10여년 간 요리와 함께하다

글 | 김혜진(편집위원)
새군산신문 기자
kimhyejin0324@hanmail.net

이웃나라 중국에서 혈혈단신 한국에 정착한 ‘쿤밍’의 최영남, 염미란 부부.

최영남 대표는 장미동의 ‘빈해원’ 주방장 시절을 거쳐 지난 5월 수송동 시립도서관 인근에 위치한 ‘쿤밍’을 열었다.

10여 년이 넘는 시간동안 중국 음식점에서 수년간의 노력 끝에 주방장이 됐고, 어엿한 식당을 운영하게 됐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함께 지켜 준 부인과 함께했다.

‘쿤밍’을 지키는 이 부부는 손님께 나가는 한 그릇의 요리에도 맛과 재료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중국 음식이 땡길 때, 이 곳의 문을 두드려 보아도 좋다.





익숙한 맛, 그러나 기본은 재료

여기에서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옛날짜장'(3,000)부터 '간짜장'(6,000), '짬뽕'(6,000원), '삼선짬뽕'(9,000원) 등을 비롯해 '사천탕수육'(17,000원부터), '간풍육'(25,000) 등 갖은 식사·요리류를 내놓고 있다.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 식자재마트에 들러서 그날 그날 들어 갈 재료를 구입하고, 10시 오픈을 준비한다.

10시부터 11시 사이 재료를 손질하고, 12시 본격적인 손님을 맞는다. 쉬는 시간에도 음식에 들어 갈 재료들을 보충하고, 예약 손님을 체크하기에 여념이 없다.

"중국 음식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대중적인 음식이잖아요. 어디든 비슷비슷할 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재료에 공을 들이는 편이에요. 그 동안 지내 온 수련의 과정에서 얻어진 노하우예요"

그래서일까. 짬뽕에 들어간 재료의 신선도가 좋다.

기본에 충실하다는 신조 때문인지 매일매일 들어가는 야채와 다양한 재료들의 상태가 신선함을 유지하고 있다.

최 사장은 "맛을 지키되 텁텁하지 않고, 먹어도 먹어도 자꾸 젓가락이 가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기나긴 수련의 시간

20대 시절, 취업비자를 받은 직장인과 한국 유학생 신분으로 만난 두 사람은 누나와 매형이 사는 군산에 정착했고, 최 대표는 지인의 소개로 2008년 빈해원에 들어가게 됐다. 그는 이곳에서 양파 까기, 팬 다루기 등 기초부터 시작했다.

요리의 길은 녹록지 않았다. 재료를 손질하다가 칼에 손가락이 베이기를 반복했고, 기름을 두른 불에 데는 일도 다반사였다.

"3년 반 정도 되니 숙련되기 시작했어요. 음식 만드는 과정이 매우 험난했어요. 재료가 충실하고, 요리 기술이 있어야 하거든요."

손에 배긴 굳은 살이 내 몸처럼 익숙해질 즈음 어렵פות이 '중국 요리'를 알기 시작했다. 그만큼 요리의 길은 멀고 험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을 임대로 직접 빈해원 매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요리를 배운 지 12년이 지난 지금은 이곳의 음식과 문화가 더 익숙하다. 중국식 냉면, 양꼬치, 마라탕 등 고향 음식이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한국 음식도 꽤 입에 맞는다. 그래서일까. 이들은 요리를 만들 때 사람들의 입에 착 감길 수 있는 음식을 만들기를 고민 또 고민한다.





빈해원에서 '맛있는 녀석들' 출연진과



일의 원동력은 다름아닌 '가족'

최 사장 부부가 '쿤밍'을 운영하는 원동력은 아들과 딸이다.

“요리하는 일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손이 까져라 연습하는 일은 기본이고, 연습을 위해 개인 시간을 포기해야 할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최영남, 염미란 부부의 쌍둥이 아들, 딸은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은 일이 힘들다고 생각될 때 두 사람을 지켜 준 버팀목이 됐다.

미숙아로 남들보다 작게 태어나 노심초사했지만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워야겠다는 일념으로 지금까지 걸어 왔다. "힘들고 고된 시간도 아이들과 함께 할 생각에 금방 극복해요." 아내 미란씨의 한 마디에서 그들의 삶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쿤밍'은 손님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기본 메뉴의 문턱을 낮추되, 맛은 신선하게 유지하고 있다.

누구든 와서 한 끼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말이다.

중식당 '쿤밍'
 군산시 수송로 163(수송동 798-3)
 (예약) 462-8800



아이들과 함께



빈해원 시절 김풍 셰프와 함께



군산의 영화감독 김대현

글 | 이진우(발행인)
jay0810@hanmail.net

최근 '로봇군산'이라는 페이크 다큐멘터리(Fake Documentary)의 촬영을 마치고 후반작업에 몰두하며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김대현 영화감독을 만나서 그간 그의 작품과 현재 진행 중인 작품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대현 감독 사진출처: CINE21.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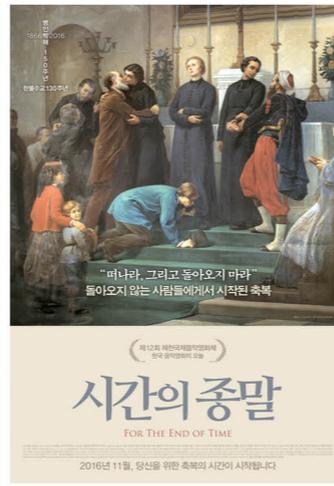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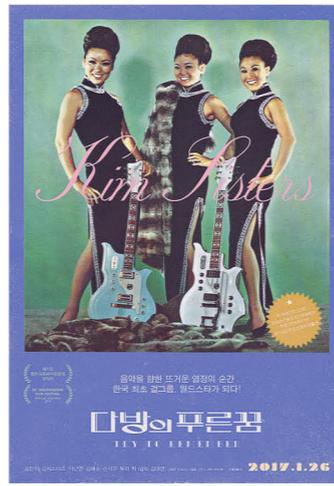
- 1993년 지하생활자의 연출을 맡으면서 감독으로 데뷔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의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해주시기 바란다.

1990년에 동국대학교 대학원 영화과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단편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 완성한 '서울길'이 16mm 필름으로 만든 첫 번째 단편영화입니다. 김성수, 유하 감독 등이 대학원 선배들이었는데 같이 작업을 했고, 김성수감독이 당시 박광수 감독의 연출부여서 선배 따라 박광수 감독의 '그들도 우리처럼', '베를린 리포트'에 연출부 막내로 참여했습니다. 이후 영화제작소 현실, 인디라인 등의 독립영화집단을 만들어 단편영화 제작 및 배급 관련된 활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지하생활자'에 이어 '나마스테 서울', '안개' 등의 작품을 만들었고, 단편영화가 전혀 배급이 안 되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아마도 한국 최초로) 독립, 단편영화 배급을 했었지요. OCN의 전신인 DCN과 캐치온 등에 단편영화를 판매하기도 했고, 1995년에는 이런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서울국제독립영화제라는 최초의 국제영화제를 기획하고 1998년까지 개최했습니다. 이 때 개막작품으로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라는 이란영화를 국내 최초로 상영하기도 했습니다. 영화제작에 국한하지 않고 독립영화 배급, 독립영화제 개최 등 영화와 관련된 비교적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했습니다.



- 다큐멘터리와 극영화를 번갈아 가며 제작을 해온 것으로 안다. 장르의 차이가 있다면? 그리고 어떤 장르가 더 매력 있는가?

최근에 '한국반안가요사', '다방의 푸른꿈', '시간의 종말' 등의 다큐멘터리를 연속으로 만들면서 다큐멘터리감독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극영화 한편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1억짜리든 100억짜리든 똑같이 힘들죠. 시나리오를 준비해야하고 캐스팅에 성공해야 하며 물론 투자도 받아야 하니깐요. 크랭크인 날짜를 감독이 정할 수 없습니다만 다큐멘터리는 조금 다릅니다. 감독 개인의 노력에 의해 어느 지점까지는 '진도'를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극영화 쪽에서 이런 지난한 과정을 이겨내야 하는 부담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점이 주로 다큐 작업을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사나 음악 등 최근의 관심사들이 다큐로 다루기에 더 적합하다는 점입니다. 각각의 소재와 주제에 더 잘 맞는 옷이 필요한데 현재 나에게서는 다큐멘터리가 몸에 잘 맞는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 2015년에 제작한 '다방의 푸른꿈'은 대한민국 최초의 걸 그룹을 다룬 작품으로 알고 있다. 미국 현지까지 찾아가서 인터뷰한 내용들과 과거 구하기 힘든 자료들을 집대성했는데, 어떤 계기로 만들어진 것인가? 그리고 제작 당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는지?

'다방의 푸른꿈'은 상당히 오래 준비한 작품입니다. '한국반안가요사'(2012)라는 다큐멘터리가 1960년대, 70년대 한국반안가요의 역사를 쫓아서 '리시스터즈', '정시스터즈' 등을 찾아가는 이야기였는데 이 작품을 하면서 이들 모든 시스터즈의 원조가 '김시스터즈'였음을 알게 됐지요. 또한 그녀들의 어머니가 이난영이고 아버지가 김해송이라서 이들의 이야기는 반드시 영화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숙자, 애자, 민자 세 분 중 애자씨는 돌아가셨고 숙자씨는 미국에 계셨는데, 영화의 주인공으로는 헝가리에 살고 계시던 민자씨를 선택했습니다. 남편인 토미빅이 헝가리 출신 미국인 뮤지션이었는데 남편의 고향으로 이주했고 부다페스트의 재즈클럽 등에서 지속적으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던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팔순의 나이에도 여전히 음악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요. 1952년 한국전쟁 중에 미군의 클럽에서 데뷔한 '김시스터즈'는 1959년에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건너갔고 1960년대에 미국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이 100불도 안된 당시에 '김시스터즈'는 주급으로만 일만 오천 불을 받았으니까요. 당시 라스베이거스 고액 납세자 탑5에 들 정도로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국 걸 그룹의 원조였고 최초의 한류스타였죠. 역설적으로, 이들이 미국에서 활동했기에 이 다큐가 제작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사실 과거의 영상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음악 다큐를 비롯해서 과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에드 셸리번쇼'에 스무 번도 넘게 출연하는 등 미국에서의 이들의 활약이 고스란히 영상으로 남아 있기에 제작이 가능했습니다.





- 서천과 함께 하던 '금강역사영화제'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숨겨진 솔직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개인적으로는 군산에 오게 된 계기가 금강역사영화제입니다. 2016년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서병수 당시 부산시장이 세월호 관련 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하지 말라는 압력을 행사했고 이에 반발해 영화인들이 부산국제영화제를 보이콧 했었지요. 영화인들 몇몇이 모여 대안적인 영화제를 논의했고 2017년 여름에 8.15서울역사영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이후 군산시의 제안으로 역사영화제를 군산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서천과 공동 개최를 하면 어떻겠냐는 추가 제안이 있어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도저히 일반적인 규모의 영화제를 개최하기에 역부족인 적은 예산이었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순항했으나 2019년 5월에 개최된 제2회 영화제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광주항쟁에 대한 가짜뉴스를 다룬 '김군'이라는 다큐멘터리 작품을 서천 측에서 상영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온 것이죠. 영화제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었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문화적 폭거였습니다. 이후 서천 측에서는 일체의 사과 및 재발 방지에 대한 입장 피력이 없었고 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는 서천과의 공동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가장 마지막 작품인 '내 신발에게'는 세월호를 다룬 작품으로 알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면? 그 어떤 정치적인 발언도 좋다.



'내 신발에게'는 단편영화입니다. 세월호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기는 버겁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무수한 사연 중에 유독 김동혁 군의 신발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지요. 수학여행 갈 때 신이라고 엄마가 사 준 새 신발을 신발장에 고이 모셔 두고 갔다가 어머니가 한참 뒤에야 신발장에서 그 신발을 발견합니다. 이 이야기를 3년이나 가슴 속에 담아 두고 있다가 안무가이자 무용가인 김동희씨를 만나면서 위령제를 지내듯 대사 없는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저 기억하고 추모만 할 수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아직도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이 소상하게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 현재 군산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왜 군산이라는 지역을 선택한 것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군산을 비롯해서 이 지역을 자주 다녔고 익숙했습니다. 영화제가 계기가 됐지만 '재미'가 없는 곳이라면 굳이 영화제작 사무실을 비롯해서 활동 기반을 전적으로 옮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군산이 가진 여러 이야기들이 충분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자리를 아예 잡고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 얼마 전에 '로봇군산'이라는 작품의 촬영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 후반작업에 들어갈 텐데, 개봉은 언제쯤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인가? 또 페이크 다큐멘터리는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는?

'로봇군산'이라는 작품은 "1930년대에 군산에 로봇이 있었다."는 가공의 설정에서 시작하는 일종의 페이크 다큐멘터리입니다. 군산중학교 학생이 1929년 경성에서 열린 조선박람회에 전시된 일본 로봇 학천칙을 보고 영감을 받아 5년 뒤에 군산에서 로봇 '산이'를 만들게 된다는... 마치 '포레스트 검프'처럼 '산이'와 함께 각종 역사의 현장에 참여하는 이야기입니다. 극장 개봉을 목표로 하는 작품은 아니고 군산의 역사이야기를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고 싶다는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지요. 군산에 대한 관심을 가진 관객, 여행객들이 군산에 와서 볼 수 있는 영화가 되기를 바라고, '산이'라는 로봇이 초원사진관처럼 좀 더 군산이야기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군산 역사를 재미있게 알리는 캐릭터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면 더 기쁘겠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시리즈 형태로 군산의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지속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또 군산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동국사 컬렉션'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올해 안에 완성하고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국사 주지 '종걸스님'과 '동국사'를 지원하는 일본 조동종의 '이치노헤스님'의 이야기이며 이들 두 분 사이의 매개가 되는 일제 강점기의 군산 역사이야기가 함께 담길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군산을 키워드로 만들고 싶은 작품을 더 제작하고 싶습니다. 당장 눈앞의 '관광 수익'을 염두에 두기 보다는 군산의 풍부한 이야기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관심은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군산에 오게 하고 오래 머물며 군산을 제대로 즐기게 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나운상가 번영회 회장 이상해 대표

백조가 되고 싶은 미운 오리새끼
나운상가 번영회

글 | 이복(대기자)
bok9353@hanmail.net



지난 5월 나운상가번영회 이상해(뱅뱅 나운점. 데니스 골프웨어 군산점 대표, 58세) 대표가 2년 임기의 회장에 취임했다. 2000년대 초반 해도 영동상가와 더불어 군산의 의류 상가를 양분하던 나운상가(나운동 차병원 사거리~극동사거리 일대 상가)였지만 수송동 등 신도심 개발과 대형마트의 등장 이후 나운상가는 침체일로에 있다.

나운동 대학로 주변 100여개 상가점포에는 '한 집 건너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상가임대를 알리는 현수막들이 붙어있다. 더욱이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나운상가는 직격탄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운상가번영회 회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진 이상해 대표를 만나보았다.



“요즘 군산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잘 나가던 나운상가 점포들이 하나둘 떠나 현재는 50여개 점포만이 대학로를 지키고 있다. 사람들이 떠나다보니 자연스레 점포들도 유동인구가 많은 수송동이나 미장동, 롯데몰 등지로 이전 하면서 나운동 상권이 붕괴되고, 매출도 예년에 비해 1/3 수준으로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려운 나운상가의 상황을 이상해 대표가 설명하고 있다. 사람이 있어야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대단위 주거지역이 신도심개발로 이주되다보니 그야말로 나운동은 구도심이 되어가고 소비층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나운주공2차아파트 재개발사업이다. 수년째 터덕거리던 주공2차아파트 재개발사업이 최근 시작되어 22년 9월 완공예정인 ‘나운금호어울림센트럴아파트’가 공사 중에 있어 여기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 여기에 나운주공 3차 아파트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이 지역 상가에 활기를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상해 대표는 “전임 회장들께서 상가 활성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것을 알고 있다”며, 그분들과 함께 힘을 합해 나운상가 활성화에 미력한 힘을 보태겠다고 전한다.

이상해 대표는 군산토박이로 영동상가에서 6년여 장사를 하다가 지난 2000년대 초 나운상가로 자리를 옮겨 당시만 해도 청바지 브랜드로 인기를 끌던 ‘뱅뱅 나운점’을 19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골프웨어인 ‘데니스 골프웨어 군산점’을 오픈해 부인 이복숙 여사와 함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Dennis GOLF



나운상가번영회 회장 취임 일성으로 이상해 대표는 “나운상가번영회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이를 해결하는 한편 회원들의 단합을 통해 예전의 활기찬 나운상가의 모습을 되찾겠다” 라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예술의전당 개관으로 활용도가 떨어졌던 군산시민문화회관이 지난 2월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돼 국비 50억원 등 총 90억 원의 리모델링 사업비가 투입된다. 빠른 시일 내에 리모델링 사업이 끝나 군산시민의 사랑을 받는 시설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나운상가와 지역주민 화합 한마당 큰잔치 개최 등 나운상가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나운상가번영회는 지난 2017년 최우수 활동으로 군산시장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이상해 회장을 중심으로 나운상가가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군산시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상가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뱅크 나운점 /
데니스골프웨어 군산점
군산시 대학로 315
063)462-2574



기업인 가수 김명환을 아시나요?

-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세계 1위 (주)덕신하우징
- 나이 70에 도전하는 트로트 가수의 길
- 군산시민예술촌 주관 단편영화제 유니폼 협찬

글 | 채명룡(편집장)
cmr0118@naver.com

경제 위기에 코로나19가 겹치면서 모두가 어렵다는 군산의 5월은 때 이른 더위가 몰려들었다. 골목마다 갈증을 느끼는 듯 한 5월의 마지막 날, 개복동 거리는 전국 최초로 열리는 24초 영화제로 들뜬 분위기였다.

24초 영화제는 군산에 정착한 영화인을 꿈꾸는 정재훈 감독을 비롯한 젊은 이들이 모여 기획하고 전국에 알린 적은 비용으로 큰 그림을 기린 행사로 꼽힐만했다.

이 영화제를 돕는 스태프들과 참가자들이 입은 검은색 톤의 유니폼이 눈에 들어왔다. 등에는 '개복단편영화제'라고 새겨져 있었다. 특이하게 (주)덕신하우징이라는 기업 이름이 새겨져 눈길을 끌었다. 사연을 들어봤다.



개복단편영화제 유니폼

군산시민예술촌 주관 단편영화제 유니폼 협찬

“군산이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영화인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24초 영화제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작게나마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세계 1위 업체 (주)덕신하우징 김명환 회장이 군산시민예술촌이 주관하는 개복단편영화제 유니폼 100벌을 후원했다.

전국의 젊은 영화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작은 축제를 여는 개복동 골목에 건축자재 생산 전문 메이커인 덕신하우징이라는 기업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은 스태프와 영화인들이 어우러지게 된 것이다.

'24초 영화제'는 지난 4월 1일부터 전국의 영화인을 대상으로 작품을 공모한 결과 161편이 응모하는 호응을 얻어냈다. 짧은 시간 안에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강렬하게 쏟아내야 하는 영화제.

이날 개복동 영화의 거리를 소개하는 초청작 '아이엠군산' 등 2편을 상영하고 프리마켓과 함께 레드카펫 행사가 열렸다. 뭔가 부족해 보이기도 했지만 매년 열린다고 하니 더 가다듬으면 좋으리라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김명환 회장은 “도전이 주는 그 신선한 에너지를 다시 얻고자 한다. 이런 내 모습이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온 장년층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가라앉은 사회에도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싶었다”고 했다.

또 “인생의 절정기처럼 불꽃같은 이미지를 전달하는 24초 영화제에 무척 관심이 간다.”면서, “어려운 군산이 이 영화제를 통하여 작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사재를 출연해 공익재단법인인 '무봉재단'을 설립한 김 회장은 오랫동안 어린이와 청소년을 후원하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온 봉사자이기도 했다.

나이 70에 도전하는 트로트 가수의 길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세계 1위 업체 (주)덕신하우징 김명환 회장이 자신의 삶을 담은 노래를 발표하며 트로트 가수 활동 도전에 나섰다.

자수성가로 증권기업을 일구며 봉사와 나눔을 실천해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는 김 회장은 최근 본인 이 작사 작곡에 참여한 미니앨범을 발표했다. 발표한 노래는 '두번째 인생'과 '밥은 먹고 다니냐'이며 이 두 곡은 최근 음원사이트에도 등록 됐다.

올해 나이 70세를 맞아 자서전과 노래를 만드는 과정에서 프로가수 제안을 받았다. 평소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고 청년 못잖은 성량을 인정받았던 그의 노래를 들은 주변 관계자들이 가수 데뷔를 적극 추천한 것이다.

“후회 없이 살기 위해, 또 자신처럼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온 장년층과 코로나19 사태로 가라앉은 사회에 용기와 에너지를 불어넣어보겠다는 마음으로 도전하였습니다.”

발표한 두 노래는 매우 신나는 리듬과 멜로디에 긍정적인 노랫말로 구성됐다. 타이틀곡 '두 번째 인생'은 '산다는 것은 배려하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라는 김 회장의 인생철학을 노랫말로 만들었다. 힘 있는 목소리, 신명나는 가창으로 오랫동안 노력하며 살아온 삶에 대한 칭찬을 담고 있다.

그는 가수활동으로 얻은 수익금은 전액 어린이를 위해 쓸 계획이다.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세계 1위 (주)덕신하우징

(주)덕신하우징은 군산과 서울 그리고 천안에 사옥 및 제조공장을 운영하며 월 생산능력 70만㎡를 갖추고 연 매출 1,490억원의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 진출도 활발한데, 베트남(하이퐁)에 공장을 설립하며 동남아는 물론 유럽, 호주 등 세계를 상대로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면서 해외 데크플레이트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김명환 회장(만 69)은 한국 전쟁기에 충남 홍성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만 졸업한 그는 머슴살이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베트남전에 파병 복무 후 돈을 벌기 위해 서울에 올라와 철강재 유통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창업하여 성공한 자수성가의 전형으로 꼽힌다.

1980년 (주)덕신하우징의 전신인 덕신상사를, 1990년에는 덕신철강을 설립했다. 창업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밥값을 아끼다 영양실조와 늑막결핵을 얻어 수술까지 받는 등 무일푼의 설움을 겪기도 했던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인물이다.

창업 후 지금까지 건설용 철강재(슬라브) 개발 및 건설시공 분야에 집중하며 덕신하우징을 국내 최대를 넘어 세계 최대의 '데크플레이트' 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덕신하우징은 2006년부터 데크플레이트 국내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2014년 8월 코스닥에 상장되었고, 동종업계 최초로 데크플레이트를 수출하면서 2015년에는 '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봉사와 사회공헌, 군산CC어린이골프대회 계획

애국심이 강한 김 회장은 “나라의 미래는 어린이”이며 “애국심을 가진 어린이는 바르게 자란다”는 신념과 철학을 갖고 있다.

김 회장의 철학으로 진행되고 있는 덕신하우징의 대표적인 어린이 사회공헌은 바로 어린이 골프대회 '덕신하우징배 전국 주니어 챔피언십'이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열리고 있다. 올해는 군산CC에서 열 계획으로 추진 중이었으나 코로나19로 개최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이 대회는 국가대표 상비군 포인트를 주는 공식대회이자 입상자 전원 장학금 지급, 갤러리 참관 허용, 그린 위 시상식 등 품격 있는 주니어 대회로 유명하다.

김 회장은 회사와 함께 '독도어린이 지킴이' 행사, '덕신하우징 광복절 상해 역사문화탐방' 등 물질적 지원을 넘어선 경험과 교육, 체험의 공헌활동을 넓혀 왔다.

덕신하우징도 사내 “덕신하우징 희망봉사단”을 통해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폭설 폭우 산불 피해가 있을 때 마다 긴급구호물품 전달 및 제설작업도 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덕신하우징은 '대한민국 나눔대상'에서 장관상(2016년 10월), '행복한 중소기업경영대상'에서 산업통상부장관상(2016년 11월)을 받았다.



Nail
속눈썹
반영구

아르떼(Arte) 뷰티샵

김현지 대표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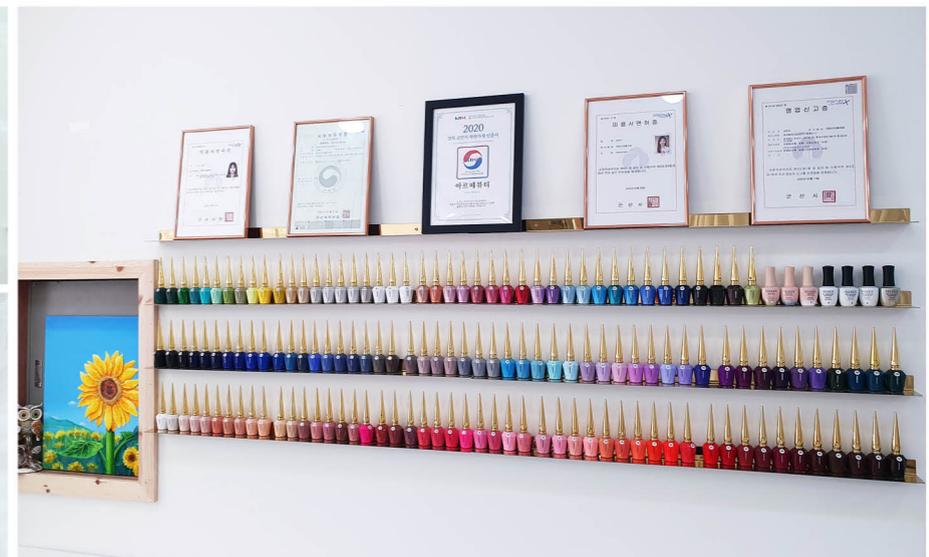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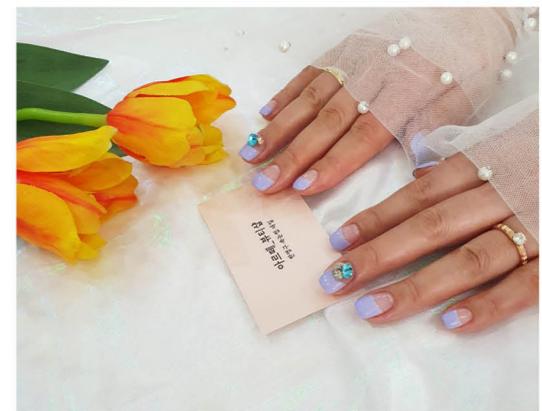


김현지 대표(우)와 언니 현아 씨(좌)

뷰티 분야 중 특히 눈썹과 네일아트에 전문성을 둔 업소 '아르떼(Arte)'. 이곳의 김현지 대표(28)는 대덕대학교에서 피부·미용을 전공한 재원으로 1년 반 전 뷰티샵 아르떼를 개업, 언니인 현아 씨와 함께 운영 중이다. 김 대표는 아이였을 때부터 인형을 예쁘게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화장에 호기심이 많았는데 그로 보아 뷰티에 대한 재능은 이미 선천적으로 타고났던 듯하다.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삶이 윤택해지고 여가가 늘면서 건강과 미용에 관련한 공급과 수요가 활발해지고 있다. 인간관계에서 대개 첫인상으로 상대에 대한 호, 불호의 감정을 갖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외적인 자기표현은 그만큼 중요한 요소랄 수 있는데, 저마다 개성과 취향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그에 따른 미용의 기법 또한 트렌드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양상이다.

여성들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는 네일아트만 해도 기법이 다양해지면서 저마다의 개성 따라 천차만별의 형태를 보여주는데 손톱이나 발톱을 미적으로 표현한다는 데에서 아트(Art)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이는 기능적인 것을 넘어서 시각적으로 아름다움을 연출해내는 미용분야로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매니큐어를 칠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디테일을 살림으로써, 손톱에 각종 그림이나 문양을 넣는 다든지 비즈나 보석을 붙이기도 하는 등 다양한 스킬이 구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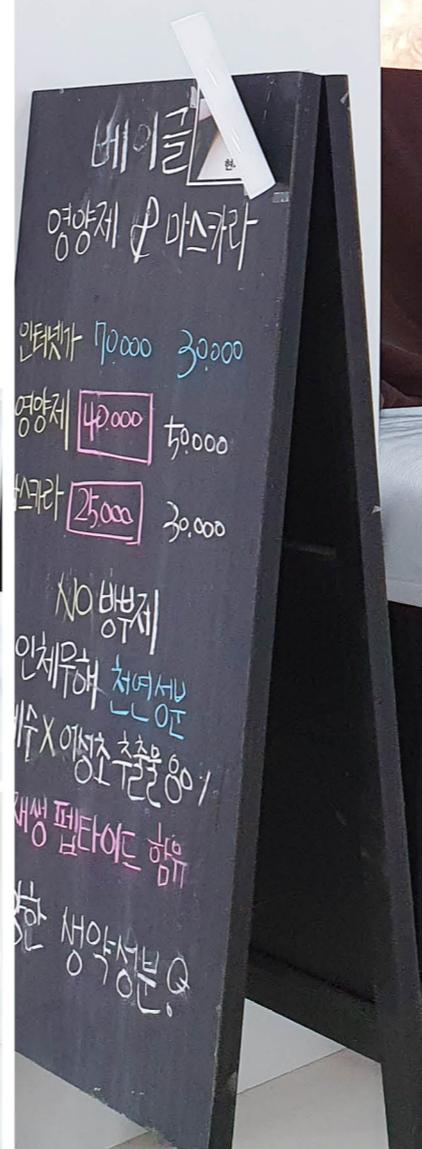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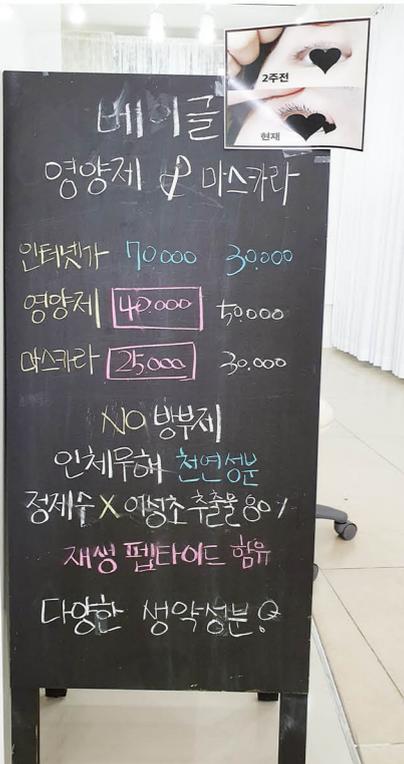


네일아트의 종류로는 자기 손, 발톱, 또는 손톱이 길어보이도록 연장(延長)손톱을 붙여 단순히 매니큐어만 칠하는 것(1시간 정도소요)에서부터 각종 그림이나 문양을 그려 넣는 것(2시간 반 정도소요)으로 구분하며, 이 경우 고객의 선호에 따라 포인트파츠, 프리미엄아트, 프렌치, 딥프렌치 등의 기법이 응용되며 요금에도 차이가 있다. 네일아트의 장점으로는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개성을 표현하는 데에서 오는 자기 만족으로 기분전환을 이룰 수 있고, 동, 서양을 막론하고 긴 손톱은 부의 상징으로서 상류층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들기도 한다.

또한 눈썹에 있어서는 속눈썹, 파마, 연장, 문신(반영구) 등의 기법이 사용되는데 속눈썹의 경우 파마를 통해 자연스럽게 위로 올리고, 속눈썹이 짧은 경우 연장눈썹을 붙이기도 하며 반영구눈썹은 가벼운 문신으로 질게 보이면서도 본래의 자기 눈썹처럼 멋지고 자연스럽게 연출되는 기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최근엔 중학생에서부터 어르신 할머니들도 고객으로 찾아오고 있으며 붙이는 눈썹은 1개월 정도, 파마속눈썹은 2개월, 반영구눈썹의 경우 약년까지 상태가 지속된다.

아르떼 뷰티샵은 동생인 김현지 대표가 피부와 눈썹, 언니인 현아 씨는 네일아트를 전담하는 자매 간 협업체제로 운영 중으로서 뷰티샵답게 청결하면서도 편안한 시설을 갖추고 매월 '이 달의 아트'를 정해서 고객에게 어필하는 한편 친절하고 철저한 상담과 뛰어난 기량,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원하는 세심한 A/S로 명실공히 관내 최고의 업소라는 자부심에 충만해 있다.

아르떼뷰티샵
 나운동 CGV건물 후면1층
 대표 HP.010-7744-7903



고객 케어 중인 김현지 대표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꿰뚫는 인문학

소설가 한상희 작가를 만나다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지난해 7월, 군산을 찾아 공기 좋은 월명동에 등지를 들고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주제로 한 새로운 시각의 10부작 대하소설을 집필 중이라는 한상희 소설가를 만났다. 그는 일찍이 재외공관 근무를 포함해 30년 이상의 중앙부처 공직(3급)과 3년간의 국책연구소 연구위원 생활을 마친 후, 2012년 말에 가셔야 숙원이던 작가세계에 과감히 뛰어든 인물로서 이후 지금까지 8년여에 이르는 동안 미 발표작까지 포함, 최소 320페이지 분량의 장편소설 16권과 450페이지 분량 이상의 문화예술전문서적 4권을 집필했는데 이는 초인적 정신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결과라 할만하다.

한 작가는 1953년 전남 담양에서 출생했다. 초등 4학년 때 부친을 따라 인천으로 전학, 고등학교를 마친 그는 청소년시절부터 특히 러시아 문학과 예술(음악/미술/영화) 등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며 성장했다. 그는 성균관대 영문학과 졸업 후 미술사학자가 되고자 흥익대 일반대학원에 입학, 서양미술사에 매진했으나 직장관계로 중단할 수밖에 없어 숙원이던 학자의 꿈은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그가 만년에 이르러 작가세계에 뛰어들어 많은 역작을 출간하는 것도 어쩌면 그때의 여한과 오기의 발동으로 읽혀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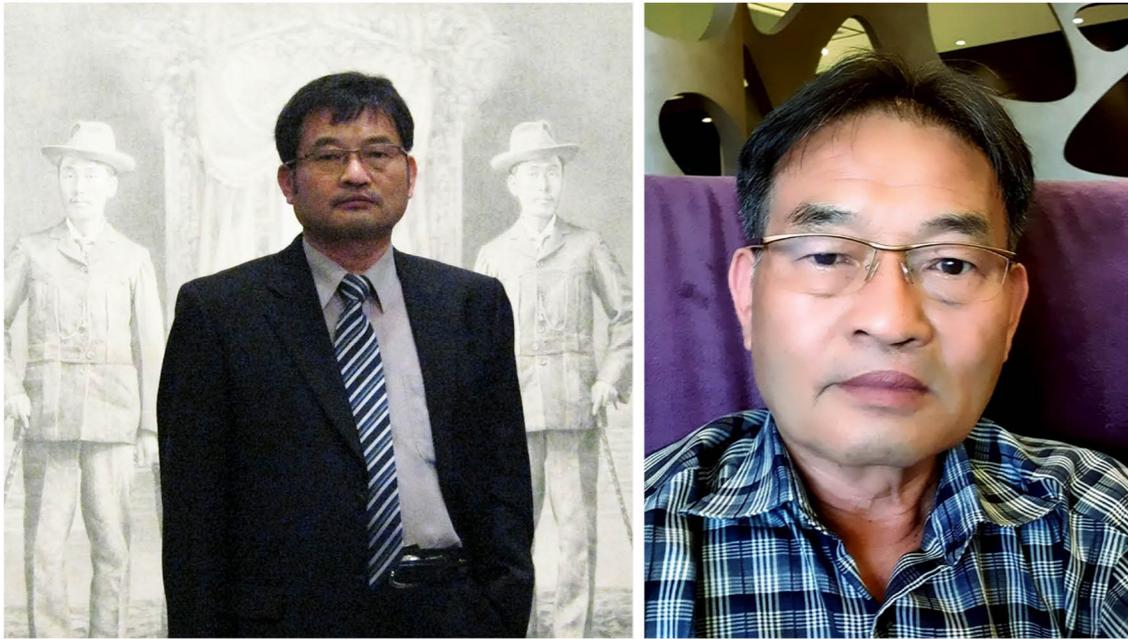
그의 첫 번째 작품은 러시아 작곡가 차이코프스키의 비극적 생애와 여인관계를 심층 분석한 문화예술전문서적 '겨울날의 환상 속에서(2012.12)'이다. 그는 연이어 '영화와 문화는 동반자' '칼라스의 영욕' 등 문화예술전문서적을 의욕적으로 집필하다가 2013. 7월, 첫 장편소설 '평양 컨스피러시'를 발표하면서 소설가로 급선회하기에 이른다.

군산에 내려오기에 앞서 그는 충남 예산군에서 2년 거주하는 동안 불꽃같이 살다간 한국 최초 여성화가 나혜석과 남로당 총책 박헌영에 관한 흔적들을 찾아 동문서주했다. 나혜석은 한 때 여승이 되고자 수덕사에서 5년여 체류했었고, 근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박헌영의 출생지가 바로 예산군 산양면이다. 한 작가는 예산을 떠나기 앞서 나혜석의 일생을 새롭게 재평가한 장편소설 '고근(古根)의 이젤'과 단편집 '미사의 종·그들은 지금 어디에·아리랑랩소디'를 발표했다. 그는 군산에 내려오자마자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10부작 대하소설 집필에 본격 착수, 불과 5개월 만에 3부작을 완성하는 초인적 필력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군산세관 경내 인문학창고 '정담'에서 차이코프스키 음악을 주제로 강연한 바도 있는 그를 뜻밖에도 군산에서 만나게 된 것은 필자에게 가치 '유봉자원방래 불역학호(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의 소회를 갖게 하는데 아래는 그와 나는 대담의 일부이다.



- 집필중인 대하소설 요지에 대해 말해줄 수 있나.

총 10부작을 계획하고 있다. 이미 탈고된 1~3부작에서는 동학혁명(1894)부터 남로당 총책 박헌영이 김일성에게 처형당한 1950년대 중반까지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제주 4.3 사건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비극사가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소설을 쓰는 취지는 다음 아니다. 특히 미래를 짚어주고 가야할 젊은이들이 좌우익 역사를 바로 인식하면서 정치권의 사상논쟁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다. 이제 우리는 경제력으로 볼 때 그런 소모적인 과거 논쟁에서 탈피해 과감히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때 됐다. 그것이 바로 김대중 정신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젊은이들이 그 주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채만식 작가가 만세운동에 참여하다가 일제에 잡혀가 8개월 옥살이를 했다는 설도 있던데.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다 알다시피 3.1만세운동은 군산에서는 한강이남 최초로 1919년 3월 5일 일어났다. 4월4일에는 임피에서도 만세사건이 터졌다. 당시 독립열사인 김홍렬을 따라 채만식도 만세운동을 하다 일경에 체포되어 8개월 옥살이를 하다 석방됐었다. 그럼에도 어찌 군산시민들 가운데 일부는 외부의 채만식 친일 주장에 부화뇌동하면서도 그의 투옥전력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애써 외면하려 하는가.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친일프레임에서 벗어나기에 충분치 않은가,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군산시민이 채만식 친일전력 벗기기에 앞장서야 한다.

- 대하소설에서 그 외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건이 있다면?

민족적 비극사건으로 아직까지 정확히 조명되지 않고 있는 1948년 10월19일 발생한 여순사건이다. 이 사건 주동자가 아직까지는 지창수 상사 등으로만 언급되어 왔는데 나는 달리 보고 있다. 그간 여순사건에서 박정희의 역할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들도 일정 부분 어렵게 찾아냈다. 박정희는 5.16 쿠데타 후 제일 먼저 수하들을 시켜 자신의 군부 내 좌익행적들을 없애는데 급급했다. 이 점은 너무 민감한 문제라서 공식 출간될 때까지 기다려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당시 여순사건 못지않게 일어난 비극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좌우익에 의한 군산 양민 학살사건이다. 이 점도 비중 있게 다뤘다.

- 대하(大河)에서 채만식 작가 문제도 집중 파고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

사실이다. 비록 영문과 출신이기는 하지만 군산에 내려오기 전 채만식문학관을 3번 방문했을 정도로 예전부터 '탁류' 등 그의 작품세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사건임을 전제로 채만식 작가는 조선이 낳은 3대 천재작가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에게는 항상 친일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이 때문에 그는 6.25발발 직전 눈을 감지 못한 채 세상을 하직했다. 그는 해방 3년 후 '민족의 죄인'이라는 중편소설을 통해 자신의 친일전력을 참회한 바 있다. 일제강점기 활약했던 친일문인(親日文人)들이 해방 후 자신의 행적을 변명하기에 급급했을 뿐 누구 하나 채만식처럼 용기 있게 공개 속죄한 적이 없었던 것에서도 채만식의 진정어린 속죄는 그 자체만으로도 마땅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문학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고 군산시민의 자존심을 되살려줄 수 있는 일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친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이(齒)를 가는 진보성향 소설가 중 한 명인 황석영 작가도 '정담'에서의 문학 경연 후 군산을 떠나면서 군산시민들에게 화두를 던지지 않았는가, 채만식 친일전력 문제는 군산시민들이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내가 이번 대하소설에서 카프문학과 연계시켜 채만식 인성과 작품성을 비중 있게 다룬 것도 그 일환이다. 일제는 카프문학(1920년대 프롤레타리아 문인들이 주도)에 극도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었다. 친일 잔재들이 지금까지 틈만 나면 진보세력을 빨갱이로 몰아 부치고 있는 것도 이런데서 비롯된 것이다.



- 작가님에게는 남다른 취미도 있다고 하던데.

그 점에 대해선 애써 숨기고 싶지 않다. 지금 이 나이가 들도록 외국 미술원서와 영화 및 클래식 음반 수집 등 평생을 문학, 예술에 미쳐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그 가운데 엄선된 명작 영화만 5,500여장을 소장하고 있다. 그런 삶이 늦게나마 소설가의 길을 갖게 한 원천이 된 게 아닌가 한다.

- 군산에 정착하면서 느낀 소감, 그리고 향후 계획을 듣고 싶은데.

군산에 내려온 지 채 1년이 안 됐는데 지내면서 자연환경이며 인심 등이 참으로 여유롭고 정이 느껴지는 곳이다. 그간 정착할 곳을 찾아 고향인 담양을 비롯해서 광주, 예산, 전주 등 여러 지역을 다녀봤지만 군산만큼 편안함을 주는 곳은 없었던 것 같다. 앞으로 대하소설은 3부작에서 잠시 접고, 800~900페이지 분량 민중미술사 단행본 집필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 이유는 독재와 맞서 싸운 민중 1세대의 경우 대부분 80세를 넘긴 상태로 그 가운데는 이미 작고하신 분들도 계셔서 더 이상 미루다간 이 작가들의 생생한 증언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집필 기간은 2~3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이 없는 한 그 기한 내 기필코 끝낼 생각이다.*





청년창업희망키움사업 협약식

창업지원 디딤돌 역할 <군산시 청년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중기부와 고용부의 협업사업으로 조성한 군산시 청년들은 전문가로 구성되어 지역내 창업지원 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창업지원과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지역특화된 그린텍 창업교육, 청년창업캠프, 관광상품창업교육 등 창업교육과 원스톱 창업컨설팅, 창업가 네트워킹 등 창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3D프린터 등을 활용한 메이커 교육, 해외 e-커머스 창업교육은 인기리에 진행되는 교육이다.

초기창업자를 위해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마케팅·홍보지원사업 등 기창업자들이 적기에 활용가능한 지원사업이 한 곳에 모여있다.

호남권 창업거점 <초기창업패키지>

군산시의 창업정책에는 공모사업도 힘을 더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에 군산대가 선정, 앞으로 3년간 연장 23억씩 국비지원을 받아 창업가 육성에 나선다. 창업 3년 미만 기업에게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으로, 지역 내 20개 기업을 발굴, 육성할 계획이며 지역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들을 체계적으로 돕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 창업꿈나무 지원사업에도 주관기관에 군산대가 선정돼 고등·대학교 창업 동아리 지원에 나선다. 우수한 아이템을 가진 창업동아리 선정, 실제 제품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부터 시니어까지 창업 생태계를 갖춘 창업 거점 도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군산시, 도전하는 도시로! 창업수도를 꿈꾼다.

글 | 매거진군산 편집부

제조업 산업 위기로, 군산시가 급작스런 일자리 위기를 맞은지 2년여가 지났다.

지난 2018년 4월 5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받은 후 도시의 생사가 걸린 일자리 절벽을 해결하기 위한 군산시의 창의적인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조선, 자동차, 화학 등 대기업 위주의 일자리 생태계는 순식간에 무너졌지만 군산시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차근차근 '다양한 도전'이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중 하나가 '창업도시'의 입지를 다지는 일이다. 지난 2월 창업 지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운영하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창업가 육성에 나선 군산시의 무한 도전을 들여다보자.

군산스테이 해피하우스



군산스테이 대상빌





관광상품 창업교육

창업활동에 집중력을 높이는 <청년창업 희망키움 사업>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시작한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초기 창업자들의 부담을 덜어 창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청년창업 군산시만의 정책이다. 초기창업자금 500만원과 매달 100만원의 창업 활동비를 최대 24개월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창업 초기 자금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청년창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창업활동비는 창업공간의 임대료나 인건비 등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활용이 가능해

초기청년창업가들의 어려움을 적절히 해소하며 타지역 청년창업가들까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46명의 창업자를 발굴,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고도화와 사업의 안정성을 위한 맞춤형 창업교육과 더불어 이달부터는 매분기마다 현장 멘토링을 통해 창업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3월 30일까지 3기를 모집하고 있으며 선정 과정은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청년창업가들이 직접 사업 계획에 대해 발표를 하고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청년창업희망캠퍼스



2019년 군산시 청년센터 창업센터 사업설명회

핸드메이드 특화 창업공간 <수제창작플랫폼>

군산시 월명동 시간여행마을에 조성하고 있는 수제창작 플랫폼은 핸드메이드 청년창업가 8명이 제품을 전시 판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제품 특화 창업공간이다. 신흥동 일본식 가옥과 동국사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입주하는 청년창업가들이 공동으로 군산 대표 상품 개발이나 지역 축제와 연계한 플래마켓을 기획하고 있어 군산 기념품 상점의 역할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시범 사업으로 창업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예, 패브릭, 가죽창작 등 다양한 분야의 핸드메이드 창업아이템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창업가들의 콜라보레이션도 기대된다.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 <군산스테이>

청년창업가들이 창업활동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공간'은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이다. 올해부터 시에서는 도전하는 동안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이하 LH)와 손잡고 청년창업가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한다.

LH에서 보유한 원룸이나 임대 아파트를 예비창업가 또는 3년 이내 청년창업가들을 공개모집해서 시에서 월 임대료 및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른 지역에서 군산에 창업의 뜻을 가지고 오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는 인프라로 안정적인 주거로 청년들이 더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도전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님 인터뷰 자료 <혁신적 사고가 창업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과거 대기업 중심의 의존적 산업구조를 바꿔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생각하는 힘, 혁신을 창조해 내는 힘은 변화의 원동력입니다. 혁신적 사고는 도전적인 실행을 통해서 현실화되고, 창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다리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가 초기창업자가 되도록 연결하고, 1인 창업기업은 고용을 창출해내는 도약기업이 되도록 연결할 것입니다.

창업의 핵심은 도전입니다. 창업가들이 망설임없이 더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만들어 지역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번 달도 군산 덕 좀 보았지

제주 청년이 군산에서 살아남기

글 | 이준혁(특별기고)
ijn1501@gmail.com

“똑똑똑”

“어서 와요. 준혁 선생님.” 청소년자치연구소의 정건희 소장님이 나를 환한 미소로 반겨주었다. 4년간 근무했던 직장을 그만두고 4개월 만에 스승의 날이랍시고 얼굴 비추러 찾아갔다. 이전 직장 대표이자 동료인 그에게 스승이라는 표현은 낯간지럽긴 하다면 책 한 권을 조공... 아니 선물로 내밀었다.

2020년 2월, 나는 갑작스러운 지인의 연락을 받게 된다. “우리 책 만들어보는 거 어때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백수 생활 2주차로 접어들 무렵이었던 나는 그 구차한 ‘요즘 시간이 없어서’, ‘요즘 회사가 바빠서’ 등 변명의 기술들이 먹히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다. 게다가 선착순 모집이라는 흔하디 흔한 마케팅 수법 덕분에 발 동동 구르다 결국 신청하고야 말았다. 한 주에 한 번, 그리고 4회기로 진행되는 총 4주간의 책 만들기 모임은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다.

모임 첫날, 나는 미원동에 위치한 ‘조용한홍분색’이라는 책방을 찾아갔다. 늘 줄 서는 손님들로 바글바글한 복성루 골목을 지나 특별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뜬금없이 위치한 건물 하나를 신기하게 바라보다 첫 모임부터 지각할 뻔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웅기종기 모여 앉았다. 서로 눈치 보다 누군가 간신히 이야기 하나를 꺼내면 금세 다시 침묵이 흐르며 애꿎은 커피잔만 들었다 놔다했다. 위기의 순간에 반짝하고 나타나 이 위기를 물리쳐 주는 누군가가 늘 나타나기 마련이다. ‘공출판사’라는 독립출판사 대표이자 독립출판물 작가로 활동 중이고 이번 모임을 기획한 공가희 대표님! 그녀의 진행 덕분에 커피잔을 더는 괴롭히지 않아도 되었다.

동네 백수인 나를 포함해서 주부, 학원 강사, 직장인, 자영업자, 교사 총 6명이 모였다. 각자 어떤 책을 쓸지도 궁금했지만 1주차, 2주차 시간이 흐를수록 조여오는 원고 마감일을 앞두고 누가 먼저 원고를 끝냈는지가 암묵적인 우리들의 초두의 관심사였을 거다. 먼저 최종원고를 끝낸 분을 바라보는 나를 포함한 나머지 5명의 눈빛 속에 부러움으로 가득 찬 걸 나는 분명 확인했으니까.



서로 의기투합했고 공가희 대표의 세세한 도움 덕분에 마지막 주차에 우린 모두 책 한 권씩 손에 질 수 있었다. 학창시절부터 '육감'이라는 이름을 짓고 지금까지도 멋진 우정을 이어나가고 있는 여섯 친구들의 글과 이야기를 담아 만든 「육감실록」 자신 주변의 사람들과 소재들을 재해석하며 글로 풀어쓴 「ego」,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로 자신을 가두었던 스토리를 시작으로 심적 고통을 섬세하게 다루고 점차 불안정한 자신을 인정하게 되며 극복해나가는 그림책 「열세살어른이」, 지금 이 순간에 오기까지의 도전했던 자신의 삶을 모은 「그래 도전」, 꽃집여자라 결혼한 남편이 꽃집여자의 실체를 낱알이 파헤치는 「저는 꽃집여자라 결혼했어요」

군산에 조그마한 책방 덕분에 나만의 책이 하나 만들어졌다. 참고로 나는 전 직장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꽃집여자를 만나 결혼했다. (독자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나는 「저는 꽃집여자라 결혼했어요」 책을 썼다.) 앞서 등장했던 정건희 소장님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은 일 하라고 보냈더니 연애를 했다며 요즘도 장난스레 말하곤 한다. 제주 청년이 이젠 이곳에서 신혼집을 꾸리고, 잘 사는 것에 대해 고민하며 군산에 정착할 수 있게 도움 준 분에게 감사 선물 할 수 있는 책이 만들어졌다. 덕분에 올해 스승의 날 선물이 특별할 수 있었으나 내년 스승의 날 선물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닐까 하며 조금은 후회한다. 괜찮을 거다. 그 분은 좋은 사람이니까... 어쨌든 나는 그렇게 이번 달도 군산 덕을 보며 잘 살아남고 있다.

세무상담 및 고문 | 가장 및 신고대리 | 법인 및 개인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 업무 | 조세 불복 청구대리 | 벤처기업 확인 업무

돈이란 버는 것 못지않게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세무사사무소와 함께 하셔야만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무문제는
나일환세무사사무소가 책임지겠습니다.

나일환세무사사무소는 양질의 세금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언제든지 조세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일환세무사 약력
군산제일고 / 전북대 행정학과 / 군산대학교원 회계학과
국세청 79급 공채(15년 근무) / 전주세무서 부가치세과 / 익산세무서 소득세과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군산세무서 재산세과(양도상속증여) / 공인중개사(14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산지회 지문세무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 세무분야 전문가
군산세무서 공평과세 위원회 위원

나일환세무사사무소

군산시 동국사길 5 (월명동 19-12)
tel. (063)466-5566, 1766 fax. (063)466-5605

웃을 때마다 눈부신 치아 상상만해도!

너무 아름다운 미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항상 성심을 다해 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좋은사람 좋은치과가
되겠습니다.

Get a Smile.
갯어스마일 -
좋은사람 좋은치과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서비스

진료시간

- 평일:
오전 9:20 - 오후 6:40
- 토요일:
오전 9:20 - 오후 1:30
- 화요일 야간진료:
오후 8:00까지



좋은사람
좋은치과

Good People, Fine Dental

add. 전북 군산시 수송동 852_2 청담빌딩 3F
tel. 063_466_2875 fax. 063_465_2922

카페 이야기

카페 <음악이야기>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한 후 삶의 의욕을 잃었다.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쉽지 않다. 의욕이나 희망 대신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카페 <음악이야기>. 그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꿈을 꾸다. 이 소설을 통해 함께 웃고, 같이 울면서 따뜻한 위로를 받으면 좋겠다.



첫 번째 _ 서장(序章)

그녀가 죽었다. 어느 가을날에.

지나고 나서야 밝히는 것이지만 그날 카페 출입문의 종소리를 들은 현우는 알 수 없는 불길함을 느꼈다. 자정이었다. 카페 출입문의 종소리가 울린 것이. 열린 문을 통해 늦가을의 밤바람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다. 한기를 느끼며 동시에 뜻 모를 섬뜩함으로 현우는 몸을 떨었다. 스태프 테이블에 앉아있던 현우는 출입문쪽을 바라봤다. 파티션 위로 남자의 머리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음악실 바로 앞까지 걸어온 남자는 현우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미 자정이 넘었기 때문에 영업이 끝났다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였다.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도 확연하게 보이는 짙은 눈썹의 남자를 본 순간 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남자의 눈길이 현우의 움직임에 감지한 것 같았다. 현우가 발걸음을 떼자 남자도 움직였다. 현우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한 걸음도 되지 않았을 때에야 걸음을 멈추었다.

“은수 형... 아니세요?”

남자를 향한 현우의 목소리는 꿈속을 헤매는듯했다. 아마 20년쯤 되었을 것이다. 이 남자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그런 은수형이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좀처럼 믿을 수가 없었다. 고향 사람 누구에게도 카페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알고 왔을 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우연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삶은 참 알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이 맞나 보다고 생각했다.

“현우? 현우 맞구나.... 제대로 찾아왔네.”

우연이 아니었다. 그가 손을 내밀었고 현우는 은수형의 손을 덥석 잡았다. 20년 만에 고향 선배를 만난 반가움보다는 뜻 모를 다른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저를...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현우의 물음에 은수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11번 테이블에 앉은 은수 형은 침묵을 지켰다. 한숨을 길게 내몰아 쉬었다.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좋을지 모르는 것 같은 얼굴이었다. 20년 동안 연락조차 없던 은수형이 그 깊은 밤에 일부러 찾아왔다는 것은 정말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몇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얽히고설켜 현우는 혼란스러웠다.

“형,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현우는 불길한 생각을 떨치려 애쓰며 그렇게 물었다.

“그러게... 오랜만이지... 나야 뭐 그냥저냥 살지...”

“근데 어찌 저를 일부러 찾아오시고...”

현우는 어렵게 꺼낸 질문의 말끝을 흐렸다. 은수형은 또다시 긴 한숨을 내쉬더니 대답 대신 술을 주문했다. 독한 술을 원했기 때문에 데킬라를 내왔다.

은수형이 메고 온 가방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놓은 것은 데킬라를 넥 안이나 연거푸 마시고 난 후였다. 그가 꺼내놓은 것은 낡은 봉투의 편지 꾸러미와 작은 원형 펜던트였다. 펜던트를 열자 젊은 남녀의 흑백 사진이 있었다. 남자는 현우였고 여자는 은수 형의 동생 은유였다. 서은유. 현우의 가슴에 고통의 파도가 일었다. 편지는 현우가 은유에게 쓴 것들이었다. 대부분 40년 전부터 30년 전에 쓴 편지였다. 편지를 뒤적거려보는데 그 시절 장면 장면이 영상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런 회상도 잠시, 현우는 섬뜩한 현실로 다시 돌아와 있었다.

“은유가 자네한테 전해주라고.....”

가슴의 통증이 더 심해졌다.

“이걸... 왜요?”

어쩌면 현우는 몸서리쳐지는 예감을 떨치기 위해 그렇게 물었는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

“지금... 어디 살아요?”

“.....”

“잘 살죠?”

“.....”

“.....”

“가버렸네. 며칠 전에...”

침묵 끝에 은수형이 말했다. 현우의 숨이 막혀왔다.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다. 물을 수 없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묻는 순간 모든 것이 사실이 되어버릴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를 악물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아랫입술을 세계 깨물었다.

“허망하게 가버렸어....”

울조리듯 말하더니 은수 형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현우는 울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정지되었다. 방금까지 듣고 있던 음악도, 롤스크린에서 움직이던 영상화면도, 카운터에 서있는 여직원도, 현우에게는 모든 것이 정지되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분명 비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20년 동안 얼굴 한 번 마주친 적 없었던 은수형이 마치 며칠 전에 본 사람처럼 앞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꿈속에서의 일일 것이라고 우기고 싶었다. 현우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계속 현실이 아니라고 외쳐댔다.

“젊은것이 뭐가 그리 급하다고.....”

더는 거부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현실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웬일인지 그녀의 부음 앞에서 현우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평소에 마시지 않던 술을 마셨다. 독한 데킬라를 두 사람은 연거푸 들이켰다. 그러는 동안 은수 형은 흐느껴 울다가 또 마음을 가다듬고 은유에 대한 말을 했다. 또다시 울음을 쏟곤 했다. 술에 약한 현우이지만 처음 한 동안은 전혀 술에 취하지 않는 듯했다. 그러다가 어느 때쯤 현우의 기억은 끊겼다.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 현우는 눈을 떴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펴보았다. 카페였다. 술에서 덜 깬 까닭인지 몇 시간 전의 일이 마치 꿈속에서의 일처럼 느껴졌다. 다음 순간 은수형이 떠올랐다.

“은수형.....”

그제야 은수형과 술을 마셨던 것을 기억해냈다. 은수형은 보이지 않았다. 이미 떠난 후였다. 테이블 위에는 그가 놓고 간 편지 꾸러미와 사진 펜던트만이 남겨져 있었다. 펜던트를 열었다.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아... 은유.....’

그녀가 죽었다는 은수형의 말을 기억해냈다. 심장의 한 부분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이 가슴에서 일었다.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그 음악을 현우가 튜트 것인지, 아니면 DJ 찬휘가 튜트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전인권의 <새아>가 카페를 휘감고 있었다.

‘새 이제 떠나거라 너의 하늘로
너만의 자유로운 세상으로’
펜던트 속 사진을 보고 있던 현우에게서 울음이 훅 터졌다.
‘새 이제 날아가라 너의 하늘로
너만의 아프지 않은 세상으로’
흐느낌이 새어 나왔다. 눈물이 솟구쳤다.
‘뒤돌아 보지 말고 그냥 날아가라
가슴 아프지 않은 곳으로
날아가라 뒤돌아 보지 말고
날아가라 내 생각하지 말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통곡이 터졌다. 음악 소리보다 현우의 영영 우는 소리가 더 컸다.

‘날아가라 날아라 날아가라
언젠가는 널 반겨줄 내 자릴
위해
날아가라 내 생각하지 말고
날아가라 날아라 날아가라’

2019년 11월 29일, 현우와 은유의 신다섯 번째 가을 어느 날이었다.



카페 '음악이야기' 대표DJ 이현웅
군산시 신지길 66(지곡동)
010-4104-7159

노무현의 가치와 정신

올해로 그분이 가신지 열한돌이 되는 해다. 지난 5월 23일 김해 봉하마을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그를 추모하는 추모식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조용하고 작은 추모식으로 진행됐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그의 정신은 빛이 났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은파유원지 내에 박석을 새겨 놓은 우리 군산에서도 노무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아 기념수를 교체하고 박석 주변을 말끔히 정비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행사를 가졌다.

2009년 5월 23일, 부엉이 바위에 자신의 몸을 내던진 노무현을 차마 떠나보낼 수 없어서, 그리워서,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한 채 우리는 매년 노무현을 기억하고 추모를 하고 있다.

이처럼 아직도 많은 이들이 노무현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노무현의 가치와 정신'은 무엇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소망했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뿌리 깊은 지역감정의 타파, 사람 사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노무현은 지극히 낮은 사람이었다. 대통령의 자리에서도 탈권위주의를 몸소 실천했고, 국민 앞에 고개 숙인 유일한 대통령이었다. 인터넷을 통한 '쌍방향의 소통'을 일궈내 국민들에게 친화감을 주었다. 한마디로 친구 같은 대통령이었다.

다른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 정치인이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그는 늘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었다. 결국 정치 역시 사람을 살리는 도구의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그였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전투구의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결국 정치의 중심에 사람이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그였다.

사람이 하는 정치에 바로 그 '사람'이 빠져있다면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질 리 만무한 법이고, 따라서 정치는 무엇보다 '사람'을 그 중심에 놓고 가치를 확장시켜야만 한다고 믿었던 그였다. 그것이 무엇보다 먼저라고 생각하던 그였다.

노무현의 가치와 정신은 '친노'라는 특정그룹의 전유물이 아니다. 노무현과 가까운 정치인, 노무현의 가신그룹, 참여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정치그룹을 '친노'라 할 수 있지만 노무현의 가치와 정신은 어느 특정인, 특정세력의 전유물이 아닌 노무현의 철학과 가치, 정신을 계승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노'이다.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과 정신을 계승하려는 사람들, 그가 사랑한 민주주의와 진보의 가치를 뛰어넘으려는 사람들, 노무현이 못다 이룬 사람 사는 세상을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보고자 하는 사람들, 사람을 품으며 미래를 향해 변화의 파도를 타고 거침없이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바로 진짜 '친노'일 것이다.

시대와 정면으로 마주섰던 노무현 대통령의 위대한 도전과 죽음으로서 다시 살려낸 그 희망의 불씨가 11년이 지난 오늘,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의 거대 여당으로 탄생했다. 그는 아직도 대한민국 정치를 움직이는 큰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무현 정신, 노무현 가치, 노무현의 업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노무현이 맞닥뜨려야 했던 한계와 고민, 그가 유업으로 남긴 미완의 과제는 이제 온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의 책무이다.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이셨고, 세상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소탈하시고, 시민과 함께 하셨던 노무현의 가치와 정신은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도 그의 가치와 정신은 진정한 '친노'들과 함께 할 것이라 생각한다.



매거진군산 회장
전 군산시의회의원
이복

감동의 시간은 짧다

어린 시절 부엌에 드나들면 어머니들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부엌에 드나들면 고추 떨어진다.”

이제 부엌이라는 단어도 사라져 가고 있는 시대에 살지만, 아무튼 남자들이 부엌이나 주방이라는 공간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설거지를 하는 것이 보편화 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 그리 오래전 일은 아니다.

결혼 후 십 년쯤 살던 남편이 어느 날 늦게 들어오는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말끔하게 해 놓았을 때, 아내의 감동은 말로 할 수 없이 컸을 것이다. 그 후로 남편은 가끔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투덜거리며 남편이 마쳐놓은 설거지 그릇을 다시 닦으며 투덜거린다.

‘이왕에 하는 것 좀 더 깨끗이 해서 내가 다시 손대는 일 없이 해 놓으면 좋으련만...’

애써 못 들은 척하지만, 남편은 그날부터 설거지할 생각이 사라지게 되고 아내가 늦게 들어와도 설거지통에 그릇은 가득하게 싸여있다.

급기야 아내는 왜 설거지도 안 해 놓느냐, 고 짜증을 내기 시작한다.

다 만들어 놓은 음식도 차려 먹지 못하던 남편이 어느 날 결혼 후 처음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상을 차렸다. 아내가 감동한다. 그 후로 남편은 가끔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리

게 되었고 그 횟수는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이제 아내는 저녁 시간이 되어도 귀가를 서둘지 않는다. 당연히 남편이 저녁상을 차려 놓을 것이기에 말이다.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늦게 들어왔는데 남편은 음식도 만들지 않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 아내가 짜증을 내며 투덜거린다. 저녁상도 준비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기대하지 않고, 포기했던 일에 대하여 어느 날 도움을 받을 때 사람은 감동한다. 남편이 처음으로 설거지를 했을 때, 처음으로 남편이 음식을 준비했을 때,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일이 반복되면서 점차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왜 안 하느냐, 고 따지고 처음 느꼈던 감동은 사라지게 된다.

우리가 처음 느꼈던 감동의 시간은 그리 길게 가지 않는다. 곧 익숙해지고, 그러니 생각하게 되고, 감사는 사라지고, 결국에는 불평하고 비난하며 다투게 되고, 이제는 그 일은 당연히 「네가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의 감동은 살면서 사라지게 되고, 감동으로 시작했던 직장의 일은 스트레스가 되고, 사명감으로 시작했던 일은 업적이 되고, 겸손으로 시작했던 일은 권력이 된다.

모든 일에 있어서 처음 느꼈던 감동의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수필가 / 청목하우징 대표 /
군산사료총판 진우상회
공동대표 / 시민·사회·
환경 운동가 남대진

스마트 수변도시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 5월 통합개발계획과 사전경관계획 구체화를 위한 총괄기획 자문회의를 열고,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스마트 수변도시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수변도시의 비전과 전략을 함께 공유하고자 자문회의를 진행 하였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국제협력용지 내에 조성되는 면적 6.6km², 거주인구 2만 5천명 규모의 친환경 복합도시로, 현재 통합개발계획을 수립 하여 오는 11월에 착공 2024년 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군산시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에 대해 신중하고 세심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현재 김제시가 새만금 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두고 분쟁중인 가운데 수변도시 건설은 지역간 갈등과 반복, 불신을 키울 것이 자명하고, 최근 새만금 개발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기본계획 재검토를 천명했지만 정작 인근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결정을 내려 국가 기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강 시장은 4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도 새만금 수질은 6등급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수질개선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등 수변도시 조성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변도시의 경우 수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대책이 마련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산업단지 조성, 국제공항, 신항만, 잼버리 지구 등 기본 인프라 사업에 집중해 조속히 마무리 하는 것이 새만금의 실질적 선도사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경실련에서도 새만금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관광 사업의 시작점은 깨끗한 환경이라며 만경강 지류의 심각한 수질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을 모색한 뒤 해수 유통의 찬성과 반대를 떠나 수변도시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30년의 기다림'이 아닐까 한다. 오랜 시간동안 공사중단과 공사지속을 반복하다 결국 방조제가 완공되고 지금은 산업단지 조성과 내부개발을 위한 매립과 남북축, 동서축 도로, 신항만, 신공항 등의 인프라시설과 잼버리 사업지구의 개발 등이 시간을 두고 차근 차근 진행되고 있다.

늘 그렇듯 많은 사람들이 새만금에서 선언하듯 개발에 관한 그림을 그리곤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6월 취임 후 가장 먼저 새만금을 찾아 새만금이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하고, 그 동안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냈지만 아직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새만금은 그렇게 많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고, 뒤이은 2018년 10월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메카로 만들겠다는 비전선포가 이제 '새만금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조금씩 진행되어지고 있다.

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인 만큼 국가가 나서서 책임 있는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접한 군산, 김제, 부안의 자치단체와 전라북도의 긴밀한 협조가 바탕이 되어야하고, 이 협조를 바탕으로 신뢰가 구축되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만금개발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내수면 수질 문제 등을 슬기롭게 풀어내면서 공항, 항만, 도로 등의 인프라 개발과 사업지구의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 한다.

글 | 온승조(컬럼니스트)
gsforum@hanmail.net

군산개복단편영화제 성황리에 열려



군산시민예술촌이 주최하고 군산시가 후원하는 군산개복단편영화제가 지난 5월30일 군산시민예술촌 공연장과 야외 뒤뜰에서 개최됐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따라 방문자명단, 체온과 손 소독을 실시해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입장이 허용되었다.

군산시민예술촌 야외에 설치된 레드카펫과 포토존에서는 내빈과 영화제 관련 분들이 인사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재미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공연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내빈과, 심사위원, 수상자, 스태프 일부만 입장되었다.

그 외 인원은 야외에 설치된 LED 전광판으로 시상식을 함께 하였다.

특히 강임준 군산시장, 신영대 국회의원, 조동용 도의원, 박광일 배형원 시의원도 참석하여 영화제를 축하해 주었다.

이번 영화제는 정재훈 총괄감독의 기획으로 '당신의 하루가 한편의 영화가 됩시다'라는 주제로 전국에 총 200여 팀들이 접수해 50편의 본선 진출작을 가려냈다.

심사위원으로는 문승욱, 정민규, 이태훈 감독이 하였고, 배우

윤지욱씨의 사회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초청작으로는 아이엠군산과 이태훈감독의 판문점어커킨이 상영되었고, 작품설명까지 함께 더해 젊은 감독들에게 미래의 꿈에 대한 용기를 주었다.

수상에는 시상 및 수상자 소감, 작품상영으로 일반부와 청소년부 동시에 진행되었고, 심사위원특별상, 굿데이특별상, 장려상,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 시상으로 영화제가 진행되었다.

영화제의 대상으로는 이아주 감독의 신발끈이 선정되어 상장과 우승트로피, 상금200만원을 수상하였다. 수상소감으로 "군산에서 처음 열리게 되는 영화제 대상을 타게 되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군산을 대표하는 영화제로 성장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군산시민예술촌 박양기 총장은 "성공적인 군산개복단편영화제를 위해 도움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도 군산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영화제로 도약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산시민예술촌
군산시 중정길 17 (구 유일극장)
063-443-7725
www.gsartzone.kr

달그락마을방송 슬기로운 정치 생활 편

지난 3월 DYBS(달그락청소년마을방송국)의 성공적인 첫 번째 마을방송 이후 시청자들과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 다시 한번 야심차게 두 번째 방송을 준비하게 되었다. 달그락 마을 방송은 청소년자치연구소 달그락미디어위원회의 이진우 위원장을 중심으로 고민해서 만들었으며, 기성 언론이 안내하기 어려운 우리 동네와 마을 중심의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DYBS 개국 전후로 3년여간 청소년 중심의 방송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고, 사이사이 성인들도 달그락의 후원 방송, 이슈들이 있을 때 방송을 진행했었는데, 2020년을 맞이하여 이번 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을 중심의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달그락 마을 방송을 만들어가고자 했다. 특별히 이번 방송의 준비와 진행은 대한민국 21대 총선 정책 TF로 활동했던 달그락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함께 해서 DYBS의 의미를 더욱 살릴 수 있었던 것 같다.

오늘 방송의 구성은 신영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보궐선거로 당선된 최창호 당선인을 초청하여 청소년과 청년, 지역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것이다. 모두 세 가지의 코너를 준비했고, '법과 정치 수업' 컨셉으로 1교시는 신영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 하는 '청소년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슬기로운 정치생활', 2교시는 '사회변화를 꿈꾸는 청년의 삶, 군산에서 어떻게?', 3교시는 최창호 군산시의원 당선인과 함께 하는 '재보궐 선거 당선 의원에게 묻는다. 군산의 발전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방송이 진행되었다.

2부에서 3부로 넘어 가는 중간에는 특별한 2가지 활동도 진행되었다. 달그락

청소년들은 정책참여 활동과정과 설문조사결과, 의원님과의 인터뷰 등이 담긴 책자를 전달해드렸고, '청소년, 청년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만든 당선인의 사진과 공약, 우선 정책 액자를 만들어서 그 곳에 신영대 당선인의 약속과 응원의 메시지를 받는 시간도 가졌다. 또 하나는 방송 참여자들에게 선물로 드리는 피자를 후원해주신 지역의 업체를 안내하면서 피자를 직접 맛있게 먹는 시간이었다. 다음 일정이 있어 문 밖을 나서던 신영대 당선인도 그 모습을 보고는 즉석에서 먹방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방송 30분 전부터 달그락에 도착하여 방송 때 이야기 할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던 최창호 당선인은 사회자의 질문에 허심탄화하게 본인의 의견을 말한다.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에게만 집중하기 보다는 청소년과 청년들과도 함께 하며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고 실행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혀주었다. 시민과 함께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가고 싶다는 최창호 당선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동네 시의원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방송의 진행은 달그락미디어위원회의 유선주 위원과 청소년자치연구소의 정건희 소장이, 총괄 기획 및 마을 업체 안내를 위한 먹방에는 이진우 위원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방송 촬영과 당일 먹방의 즉석 출연에는 마음한장 스튜디오의 김수호 대표가 함께 했다.

어떤 분들은 종종 이런 방송이 무슨 사업비 받아서 하느냐고 묻는데, 사실 청소년자치연구소와 달그락의 위원회나



참여자 분들 특징은 지역에, 청소년에게, 청년에게 도움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진행한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순수 자비량으로 하고 있다. 심지어 게스트 분들도 자비량이다. 1회 방송에서는 더리더 지곡점 김효주 대표가 시민 참여자 분들 위해 커피 등을, 2회 방송에는 군산발렌타인피자의 오인성 대표가 피자를 후원해주셨다. 시민성이 높은 분들이다. 달그락 마을방송은 지역 시민들이 연구소 내 위원회에 작은 모임으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지역사회에 나름의 역할을 하기 위해 소소하지만 꼭 알아야 할 정보와 관점들을 전하기 위한 과정이다.

앞으로 어떤 모양새로 만들어 질지 모르겠지만 중앙도 아니고 권력도 아닌 그저 소소한 우리 내 지역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소통이 되는 지속가능한 마을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본 방송의 시청을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서 "청소년자치연구소"를 검색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청소년자치연구소 및 달그락달그락 홈페이지 : <http://www.youthauto.net/>
페이스북 : www.facebook.com/youthautonomy/
문의 : 063-465-8871, jbyar@daum.net

달그락 달그락

“작고 단단한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

앞의 달그락은 청소년들이 움직여서 내는 소리입니다.
뒤에 달그락은 청소년들의 움직임과 목소리로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소리입니다.



Youth Movement



저희 연구소와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후원계좌_ **국민은행 247901-04-096683**
예금주_ (사) 들꽃청소년세상



add. 54023 전북 군산시 월명로 475-1(월명동)
tel. 063) 465-8871 fax. 063) 466-8871
e-mail. jbyar@hanmail.net web. youthauto.net
cafe. <http://cafe.daum.net/ymcaleader>

청년들-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협약

4차 산업시대 핵심기술자 양성

군산시 청년들(청년센터·창업센터)는 지난 20일 센터 내 청년 강당에서 군산시 고용서비스 지원안정을 위해 HRD 전문 교육훈련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전북 인력개발원과 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취·창업 및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무인항공·드론 등의 전문분야 교육 프로그램 연계에 관한 내용으로, 군산지역 청년들에게 전문인력 개발 분야 교육훈련 제공서비스와 취·창업 관련 전문영역 지원체계를 만들어 공동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군산시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전북 인력개발원은 HRD 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 구직자와 근로자 대상으로 최근 특화된 교육으로 무인항공·드론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안태욱 센터장은 “현재 고용위기 지역인 군산에서 차별화된 전문분야 교육 서비스는 필요하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군산지역 청년들에게 기술 자격증 취득 및 무인항공·드론 등의 전문분야 프로그램을 연계한 취·창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전문인력양성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구직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장과의 특&톡 운영재개

군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중단되었던 시장과의 특&톡을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5월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시는 최근 특&톡의 운영재개에 대한 문의가 잦아지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시는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착용 등 기본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운영 재개를 결정했다. 시장과의 특&톡은 시민과 시장과의 직접 소통방식으로 시장현안 및 쟁점을 공유하고, 형식을 탈피한 대화방식으로 시민들에 호응을 얻어왔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143건의 시민의견이 제시됐으며, 누적 참여인원은 572명에 이른다. 운영재개는 오는 29일 14시에 군산시청 4층 상황실에서 실시되며 이후 매월 마지막 금요일 운영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이와 함께 읍면동 주민들의 일선 소통창구인 읍면동장 공감대화도 6월부터 매월 첫 번째 목요일 14시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직접 소통 창구채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 실직자 긴급생계비·시간제 일자리 제공

단기근로 청년실직자 150만원 지급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

군산시가 전북도와 함께 오는 25일부터 청년실직자 생계 지원금 지원사업과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실직자 생계지원금 지원사업은 시간제·단기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에 1개월 이상 종사하다 실직한 청년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청년실직자 18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만18~39세 이하(1980년~2002년생) 청년 중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일인 1월20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1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청년으로,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받는다.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은 청년사업장에 시간제 신규고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 중 시간제 청년근로자를 신규고용 가능한 사업장으로 40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장은 6월 말까지 청년을 채용할 경우 월 최대 200만원씩(사업장 부담 20% 포함) 4개월간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접수 기간은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은 25일부터 6월 10일까지이고 생계지원금은 25일부터 6월 14일까지이며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www.jb2030.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063-454-4382~3)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실직자 생계지원금
신청접수 바로가기
※공고문을 꼭 확인해주세요!

모집기간 2020. 5. 25.(월) ~ 6. 14.(일) 24:0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www.jb2030.or.kr) 배너클릭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전북 도내 거주중인 실직청년(만18세~39세)
*단기근로, 아르바이트 등 1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20. 1. 20~공고일 현재'사이 1개월 이상 실직 청년
지원내용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3개월) / 총 1,000명 지원

군산시 상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 시행

6월 10일부터 시청·주민센터에서 접수

군산시가 저소득층 및 3명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 상수도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군산시는 저소득층 및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7월 부과분부터 상수도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주민등록등본상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이 감면대상에 추가됐다.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는 6월 10일부터 시청 수도과 및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달부터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3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게 되며 중복 감면은 불가하다. 최영환 수도사업소장은 “상수도요금 감면은 조금이나마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시행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군산시, 국립과학관 유치나선다

전북도와 업무 공동 협약 체결

군산시와 전북도가 국립과학관 유치 활동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를 통해 오는 2023년까지 총 5개의 전문 과학관을 증설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에는 1개소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군산시와 전북도는 22일 도내 기관과 손잡고 유치활동은 물론 유치 이후 성공적인 운영모형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이번 협약식은 과학관이 건립될 군산시와 군산대 및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총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그동안 추진한 설문조사와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국비 245억원을 포함한 400억 규모의 전문과학관을 부지매입이 완료된 군산시 금암동 근대문화 역사지구 인근 17,712㎡에 지상3층, 연면적 약 5,176㎡(1,565여평)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특화분야는 지역의 강점인 농생명·바이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사회문제·지역현안을 해결하는 체험형 전문과학관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장은 “국립 광주과학관이 호남의 거점과학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전북은 생활·경제권이 광주·전남과 다른 독자권역으로서 국립전북과학관 설립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국립과학관의 필요성을 도민들 역시 공감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국립 과학관이 전북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시 농림지 돌발해충 협업방제 추진

6월 1일부터 5일까지 공동방제기간

군산시는 외국에서 유입되어 과수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갈색날개매미충과 꽃매미 등 돌발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방제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협업방제를 추진한다. 군산시 돌발해충 방제 사업부서인 기술보급과, 산림복지과와 과수농가 대표로 구성된 공동방제 협의회는 지난 2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돌발해충 방제협의회를 개최하고 방제대책을 협의했다. 시는 오는 6월1일부터 5일까지 돌발해

충 공동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돌발해충 월동난 예찰결과와 유효적산온도를 토대로 발생상황을 예측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6월3일을 돌발해충 공동방제의 날로 지정하고 농경지는 농업 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농경지 인접 지역은 산림복지과에서 일제 방제실시로 돌발해충 피해 예방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겨울을 경과한 돌발해충 알의 최초 부화는 5월24일로 추정되며 월동난이 50~80% 정도 부화하는 6월1일부터 5일까지가 방제적기로, 이때 집중방제 해야 방제 효과를 최대로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군산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시민정책 제안공모전’ 해양경찰서, 김지영씨 최우수상 수상

시민 의견이 반영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군산시와 용역사(주)브레인파크가 추진한 시민 정책 제안 공모전에서 군산해양경찰서 김지영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군산시는 ‘당신의 생각이 군산의 미래입니다!’라는 주제로 지난 4월 16일부터 29일까지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공모전에서 총 34건의 제안을 접수 받았다. 용역사 연구진들은 이 중 논리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최종 6개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김 씨의 ‘한중일일 모두 체험할 수 있는 특색있는 항구도시 군산 관광 개발’이 최우수 제안에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해 100만원의 상금을 받게 된 김지영씨의 제안은 등불을 활용한 야간 경관 조성과 군산 특산물을 활용한 어부도시락 판매 등 군산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내용을 담고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군산 문화관광 플랫폼 사업을 제안한 김광철씨와 도심 빈집을 사회적기업의 창업 및 보육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한 지규옥씨에게 돌아갔다. 이 밖에도 군산시청 김영량 계장(감사담당관)의 ‘일반 토목구조물을 경관구조물로 활용하는 제안’과 ‘시간여행 마을에 색다른 골목명을 부여하자’는 김빈수씨의 제안, ‘근대역사문화유산을 야외박물관화’하는 정옥순씨의 제안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군산에서 펼쳐지는 축제 및 행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캘린더입니다. 매일 새로운 행사를 찾아다니며 군산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행사 및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맥군(매거진군산)에서는 행사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사를 맥군 행사 안내란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감은 매월23일까지 입니다. jay0810@hanmail.net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행사와 공연 스포츠 경기를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GUNSAN CALENDA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女唱歌曲-최경래 마음의 노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교향악단 제137회 정기 연주회 군산 예술의전당	김신혜 바이올린 독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020 어울림 페스티벌-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01	02	03	04	05	06	
라클레프 제2회 정기 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 판소리를 세계로 '추향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시립국악단 제223회 정기 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립국악원 청소년 협연의 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년별 퍼포먼스 웅알스 군산 예술의전당	
07	08	09	10	11	12	13
베스트 스트링 챔버 오케스트라 제18회 정기 연주회 양상블 파르베 제11회 정기 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어린이뮤지컬 알라딘 군산 예술의전당	2020 목요일국악 예술무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시립교향악단 제243회 정기 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합창단 제72회 기획 연주회 군산 예술의전당	레시스 피아노 앙상블 창단 20주년 연주회 이정재 피아노 독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14	15	16	17	18	19	20
전북레가토색소폰 앙상블 제12회 정기 연주회 양상블 포레 제2회 정기 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문화가 있는 날 하우스 콘서트 (이든콰르텟) 군산 예술의전당	제14회 군산시 노사 가요제 군산 예술의전당	2020 전국 탐10 가요쇼 녹화 Tous string quartet 제5회 정기 연주회 군산 예술의전당		
21	22	23	24	25	26	27
피아노다이러리 Next Generation Concert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립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경기전 '연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립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경기전 '연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8	29	30				



전시 | **군산예술의전당**
군산미술협회 정기전 2020-06-19 ~ 2020-06-25
벚꽃아동미술실기대회 시상 및 전시 2020-06-26 ~ 2020-06-28

공감 선유
06.06(토)~06.30(화) 고보연 작가 설치 개인전 <그녀의 이름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
06.03(수)~06.07(일) 제52회 강암연목회


우리들의 작은 관심으로
희망과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 | | | |
|--|---|--|
| 모세스영아원
군산시 쌍천로 82-13(개정동)
(063) 452-4075 | 구세군군산후생관
군산시 월명로 514(신흥동)
(063) 445-9331 | 삼성애육원
군산시 구영2길 1-2(신창동)
(063) 445-5947 |
| 일맥원
군산시 석치2길 14(문화동)
(063) 462-2385 | 신광모자원
군산시 부곡로 19(나운동)
(063) 462-7749 | 신광모자자립원
군산시 한밭1길 35(나운동)
(063) 461-8572 |
| 구세군군산목양원
군산시 회현면 남군산로 332-45
(063) 466-6088 | 나눔의집
군산시 옥구읍 옥정길 101-7
(063) 464-9944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군산시 칠성안3길 37(산북동)
(063) 466-7981 |

군산시는 전 행정력을 기울여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군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손바닥, 손톱 밑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



선별진료소*(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선별진료소 안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할보건소 또는 지역번호+120, 1339 문의



감염병이 의심될 때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담